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 서부 한인회에 던진 불편한 질문

보스톤 한인회측 “사전양해 협조 요청 없었다”  
출범 부적절해 보일 수 있지만 특별한 의도 없어  
한인회 난립 분열 우려에 봉사단체로 상생가능

### 매사추세츠 서부 한인회 서천 회장과의 일문일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서부 한인회가 공식 출범했다는 보도가 나간 후 한인회 관계자들은 이런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불편한 표정이었다.

특히, 2년간의 공백을 지나 한인회가 새출발하자마자 매사추세츠 서부에 한인회가 생겼단 소식에 환영보다는 우려가 앞서 제기됐다. 지금껏 타 지역 한인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접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서천 회장이 보스톤 한인회(가칭 매사추세츠 한인회) 임원으로 합

류기로 했던 상황이었기에 일부 인사들은 서부 한인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동안 매사추세츠에서는 암묵적이고 관습적인 동의에 의해 주당 1개의 한인회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보스톤 한인회(가칭 매사추세츠 한인회)의 관계자들의 불쾌함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더구나 장우석 한인회장에게 따르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양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서천 회장은 “결코 서부 한인회 출범과 관



서천 매사추세츠 서부 한인회 회장

련 다른 의도는 없으며 명리를 위한 것이 아닌 봉사하는 단체로 출범한 것”이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한인회를 발족하는데 양해나 협조는 필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양쪽의 입장이 모두 수긍이 되는 점이 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제 ▶▶5면으로 계속

## 'We Need Numbers to Tell Our Story'

Reversing Census Undercount in Indian Country

(Sacramento = Ethnic Media Services ) Mark Hedin = Fear, distrust and even anger at the federal government are among the obstacles the 2020 Census must overcome to reach an accurate count, especially of immigrants and communities of color, most experts agree.

For Native Americans, the ethnic group with the highest undercount of any defined by the Census Bureau, these obstacles are compounded by diversity and isolation.

So concluded a group of Native American media representatives who met recently in Sacramento with state officials, a Native American legislator and members of the governor's staff to brainstorm how to reverse the undercount in 2020.

Those media in attendance were: Hoopa Radio, Indian Country Today, Indian Voices, News from Native California, the Two Rivers Tribune, the Quechan Indian Tribe's KUAV-FM, KPRI-FM from the Pala Indian Reservation and FNX-TV. Also on hand were state government and Ethnic Media Services staff.

There's no ▶▶Continue on page 8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여름출발  
인천행직항항공권  
\$1439~  
TAX 포함

ICE TRAVEL  
617.424.8956  
월요일 ~ 토요일 낮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EST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21 CENTURY 21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 한인회장 비롯한 임원 1명 한인회관 재관위원으로 합류기로

## 한인회 임원 재관위원 만남 갖고 논의 운영규정 및 재무, 세무정보도 공유기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가칭 매사추세츠 한인회(회장 장우석) 임원단이 한인회관재산관리위원회(이하 재관위)와 첫 공식 만남을 5월 15일 갖고 서로간의 소개와 향후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우편소재 한인회관에서 이뤄진 첫만남에서 한인회 임원단은 재관위로부터 재관위의 과거 역사와 한인회 분리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남궁연 전 재관위원장은 한인회 발족의 역사와 한인회관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했다. 안병학 위원은 한인회관 설립 이후 한인회관 사단법인 설립 (KACNE : Korean American Community of NE Trust)에 대한 입장과 경위를 설명했다

재관위는 한인회 임원단의 요청에 따라 재관 위 운영규정(By law), 세금보고, 은행계좌, 재무 보고서 등을 공개키로했다. 또한 3년인 재관위원의 임기 연한에 따라 3년 임기가 다한 일부 위원이 사퇴하고 한인회장과 주요 임원 2명이 재관위원회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인회 임원단은 2012년 KACNE 설립 시

영규정이 미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장기프로젝트 한인회관 증축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영호 재관위원장은 “누구라도 적임자가 나타나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다면 위원장 자리를 이양하겠다”고 고려했다. 다만 “한인회장이 단독으로 트러스티를 구성하는 것은 임의로 재산처분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는 이영호 재관위 위원장, 남궁연 위원, 안병학위원, 김성균위원, 박진영위원, 이기환 행정실장 등 한국에 출타중인 한순용 위원을 제외한 총 6인의 재관위원들이 참석했다. 한인회에서는 장우석 회장, 이재민 수석부회장, 이상원 부회장, 이영애 부회장, 이충현 부회장, 박찬모 사무총장, 윤나 기획재정팀장 총 7인이 참석하였다.

참가자들은 약 2시간 정도 회의를 마치고 뉴장수갈비에서 저녁을 같이했다. 한인회측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만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관위원들은 한인회 임원들을 격려했다.

hsb@bostonkorea.com



좌측 위부터 이기환, 김성균, 박진영, 안병학, 남궁연, 이영호, 장우석, 이충현, 서영애, 윤나, 박찬모, 이재민 (직함 생략)



좌측부터 이충현, 안병학, 윤나, 서영애, 박진영, 박찬모, 이상원, 장우석, 남궁연, 이재민, 이기환 (직함 생략)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보철 전문
-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보스톤 한인회 이제 '매사추세츠 한인회'로

## 한인회측 30년을 내다보고 변경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한인회가 가칭 매사추세츠 한인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가칭 매사추세츠 주 한인회의 이충현 부회장은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매사추세츠 한인회 변경을 이사회에서 승인 받았으며 현재 주정부 등록 중에 있다” 고 밝혔다.

가칭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주정부 등록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정식으로 매사추세츠 한인회라는 단체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장우석 한인회장은 변경 이유에 대해 “일단 혼동이 있다. 뉴잉글랜드 한인회에서 보스톤 한인회로 바뀌었다. 어떤 결과로 인해 보스톤 한인회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스톤 하면 너무 지엽적이지 않나.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름이라도 매사추세츠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임원진들의 의견이었다” 라고 밝혔다.

장우석 회장은 “보스톤 한인회의 경우 도시의 명칭이라 스프링필드, 앤도버 등 한인회의 우후죽순 난립의 계기를 줄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장 회장의 주장은 과거 2013

년 보스톤 한인회 이름 개칭 당시 서규택 전 한인회장이 “도시명을 팔 경우 뉴욕 한인회, 퀸즈 한인회 등 도시마다 한인회가 결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 지적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보스톤 한인회’ 는 2013년 9월 한선우 전회장이 “한인들에게 더욱 가까운 한인회로 나서기 위한 것” 이라며 이사회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 전회장은 당시 보스톤코리아와 인터뷰에서 보스톤 지역을 찾은 한인들이나 한국 및 타주에서 보스톤에 관심을 두는 한인 모두에게 정보와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타주나 한국에서는 뉴잉글랜드라는 지명을 아는 한인들이 많지 않다” 는 것이다.

당시 한인회의 실용적인 입장에 대해서 일부가 반대입장을 개진했었다. 그러나 한회장은 이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고 결국 한인회측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보스톤 한인회로 지금껏 이름을 유지해왔다.

이번 한인회 이름 변경에도 일부

한인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매사추세츠 한인회 이름 변경에 대해 한인 최영한 씨는 “너무 자주 바뀌어 혼동스럽다” 고 지적했다. “한인회장이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것 같으며 뉴잉글랜드에서 보스톤으로 다시 매사추세츠로 바뀌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한인회의 명칭을 두고 그동안 갑론을박이 계속되어 왔었다. 과거 뉴잉글랜드 한인회는 몇번이고 명칭을 개칭하려고 했으나 원로들의 전통유지 주장에 번번히 이름 개정을 포기해왔었다. 지난 1999년 명칭 개칭 공청회에서는 참석자의 90%가 개칭을 반대했었다.

지난 2009년에는 흥진섭 전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이 “뉴잉글랜드 한인회는 이름 변경해야” 라는 기고를 통해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뉴햄프셔 한인회 등 매사추세츠 주를 제외한 뉴잉글랜드 5개주에 각각의 한인회가 있다며 한인회 이름이 부적절하며 보스톤 한인회 또는 매사추세츠 한인회로 개칭해야 한다고 주장해 매사추세츠를 제외한 주 한인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editor@bostonkorea.com



## 보스톤 산악회 10주년 기념 산행

6월 1일 토요일 라파엣 마운틴 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5월 창설 10주년을 맞는 보스톤 산악회가 6월 1일 토요일 10주년 기념산행을 나선다.

"아름다운 산 좋은 사람들"이란 표제하에 보스톤산악회는 그동안 월 2회 뉴잉글랜드 지역 정기적 산행과 N.H PRESIDENTIAL 지역 종주산행, 타주 원정산행 등 10년간 연인원 최소 5천여명이상과 함께 산행해 왔다. 현재 등록회원수 500여명의 단체로 발돋움 하였다.

10주년 기념 산행은 뉴햄프셔에 위치한 라파엣 마운틴 (MT. LAFAYETTE)을 등반한다. 특히 10주년을 맞아 산행을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고 산행을 간다. 라파엣은 초보부터 전문 산행인들까지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가 있어 A조(왕복 9마일)에서 D조(왕복 3.8마일)까지 나눠서 산행을 실시한다.

참가비는 \$20이며 참가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스톤 산악회 티셔츠를 선물로 제공한다. 참가신청 마감은 5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등산 당일 집결은 93번 앤도버 42번출구 파크앤라이드에는 오전 7시, 뉴햄프셔 샬럼 93번 2번출구 파크앤라이드에는 오전 7시 20분까지 해야 한다.

준비물은 등산복, 등산화, 모자, 배낭, 음식, 등산용 스틱, 물 1.5리터 등이다. 문의 및 참가신청은 978-569-3256 (김상호)으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SAT Plus Spring Schedule 2019

All Classes Starting March 16th(Saturdays)

| Class                         | Time             |             |
|-------------------------------|------------------|-------------|
| SAT II MATH IIC               | 9:00AM - 11:00AM | 3/16 - 5/25 |
| SAT II Chemistry/AP Chemistry | 11:30AM - 1:30PM | 3/16 - 5/25 |
| SAT II Biology/AP Biology     | 2:00PM - 4:00PM  | 3/16 - 5/25 |
| SAT II MATH IC                | 5:00PM - 7:00PM  | 3/16 - 5/25 |

## SAT Plus Summer Schedule 2019

July 2019

| Class              | Time               |                        |
|--------------------|--------------------|------------------------|
| SAT I Prep         | 8:00 AM - 12:00 PM | 7/8 - 7/26 Mon-Fri     |
| Chemistry(Preview) | 1:00 PM - 3:00 PM  | 7/8 - 7/29 Mon/Wed/Fri |
| Biology(Preview)   | 4:00 PM - 6:00 PM  | 7/8 - 7/29 Mon/Wed/Fri |

August 2019

| Class                                     | Time                                   |                        |
|-------------------------------------------|----------------------------------------|------------------------|
| SAT I Prep                                | 8:00 AM - 12:00 PM                     | 8/5 - 8/23 Mon-Fri     |
| SAT II Subject Tests (for August 24 test) | 1:00 PM - 3:00 PM<br>4:00 PM - 6:00 PM | 8/5 - 8/23 Mon/Wed/Fri |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북부 보스톤 상록회 경로자치로 즐거움과 웃음 선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상록회가 주최한 제 4회 경로잔치에 약 120여명의 노인 및 참전용사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상록회(이기환 회장)가 여선교회 및 남선교회의 후원을 받아 개최한 이 경로잔치는 3부로 나뉜 세심한 진행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준비한 손비누 선물, 게임을 통해 전달하는 선물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상록회에 따르면 이번 경로잔치는 보스톤 인근에 사는 어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따뜻한 한식으로 타국에서 외로움도 서로 달래고자 마련했다.

5월 18일 토요일 앤도버 소재 북부보스톤교회(담임 최진용 목사)에서 열린 경로잔치에서 이기환 상록회 회장은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한 개 없어진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국민소득 100달러의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얻은 귀한 지혜를 다음 세대에 계승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대훈 씨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 북부보스톤 교회 담임 최진용 목사는 참전용사 강경신 회장을 비롯해 미국인 참전용사들을 한사람씩 소개했다. 또한 원호찬 씨의 가야금 연주, 최미숙 씨의 소프라노 독창, Matthew Jo의 첼로 연주, 북부보스톤 교회의 임마누엘 중창팀의 정겨운 노래, 보스턴한미노인회 '보스톤 난타

팀'의 멋진 공연 등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상록회와 여선교회의 후원으로 꾸민 한식 뷔페 만찬이 준비되었다. 3부에서는 상록회 회원인 주중옥 씨의 마술쇼가 이어졌다. 뛰어난 마술로 관중을 사로잡았다. 상록회 회원인 홍성도 씨는 특유의 '만담'으로 폭소를 이끌어 냈다. 인도식 영어발음 흉내 그리고 경부선 안내원 방송, 투표를 통한 전국 사투리 만담 등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김지영 씨의 '게임 및 오락' 시간에도 참가자들은 여러 오락 게임을 즐기며 푸짐한 상품을 받는 즐거움도 함께 받았다.

이날 경로잔치에는 장우석 한인회장, 윤철호 노인회 회장, 이경해 시민협회장, 김인숙 국제선 전국 회장, 채명희 국제선 NE회장, 남궁연 전 한인회장, 한윤영 뉴햄프셔 한인회 고문, 윤은상 서울대동창회 NE 회장, 특히 90이 넘는 강경신 6.25참전용사회장, 로버트 캠벨 등과 한 국전 참전용사들도 참여했다.

상록회는 매달 24째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모임을 갖고 있다. 노인회의 매달 1,3째 주 사랑방모임과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건강체조, 공작, 무용, 난타, 바둑 등 다양한 문화교실이 준비되어 있다. 북부보스톤교회 노인사역부에서 한식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한다.

문의 이기환 회장(781-572-8044)

bostonkorean@hotmail.com



상록회(이기환 회장)가 여선교회 및 남선교회의 후원을 받아 개최한 이 경로잔치는 3부로 나뉜 세심한 진행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준비한 손비누 선물, 게임을 통해 전달하는 선물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 정관장



정관장으로 에브리타임 활력충전!

3월 31일 까지

Event 1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Mild 100g 증정

BEST DEAL

\$60 상당

Event 2



홍삼돈 골드, 홍천웅 구입시  
홍삼돈 마일드 10파우치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한인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한인회인지 먼저 물어야

▶▶1면에 이어서

판관은 소비자 즉 한인들이다. 한인회는 결국 한인들의 수요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 한인들의 충분한 요구가 있다면 한인회가 결성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문제는 그게 한인회의 서비스가 필요한 한인들의 요구인지 아니면 단체와 조직 그리고 자리가 필요한 몇몇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인지의 차이이다.

매사추세츠 서쪽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는 한 한인인은 서부 한인회 출범 기사를 보고 반가웠으며 서부 한인회의 연락처를 물어왔다. 이처럼 매사추세츠 서부 한인회가 서부지역의 한인들의 필요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한다면 보스톤한인회의 불편함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결국 판단은 지역 한인들에게 달린 셈이다.

독자들의 판단을 위해 보스톤코리아는 출범 소식을 전하며 미처 던지지 못했던 질문들을 서천 회장에게 물었다. 전화통화와 카톡 등을 통해 물었던 것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매사추세츠 서부 한인회의 보도가 나간 후 부정적인 반응이 먼저 들어왔다. 매사추세츠에 한인회가 없어 그동안 공백이었다가 겨우 한인회장을 선출해 이제 보스톤 한인회가 막 출발하는데 하필이면 왜 지금이라는 반응이다.

서천: 한인회 단합에 대한 생각은 장 회장보다 제가 더 강하게 주장했다. 예를 들면 서부한인회도 장 회장은 지부로 했으면 어떠냐고 하였으나 제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했다. 그렇게

주장한 것은 전적으로 장 회장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며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서부 쪽 임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제 양지로 나갑시다 해서 그리 된(출범한) 것이다. 무슨 복선이 깔린 것처럼 언표 할 일 아니다. 보기에 따라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의도 없이 시작된 일이다. (글로 정리하기 전 전화통화에서 서 회장은 서쪽 지역의 시간에만 신경 썼을 뿐 보스톤한인회 입장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부 매사추세츠 한인회 설립에 있어 현 보스톤 한인회에 양해를 구한다거나 하는 충분한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서천: 양해 구할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아는 처지에 서로 언지라도 주지 그랬냐는 정도의 내면이라면 수긍이 가지만 그 이외의 것은 서로가 그리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서 회장은 출범 보도자료를 보스톤코리아에 전송하기 4일전 보스톤 한인회 장우석 회장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 이메일에서 서 회장은 장 회장에게 서부 한인회 모임에 대해 밝히고 한인회 임원으로 합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서부한인회를 출범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보스톤 한인회 입장에서는 화칙에서 정한 관할 또는 회원 구역인 매사추세츠 내에서 한인회란 명칭을 가진 단체가 설립됐다는 자체가 불쾌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원래 자신의 것을 갑자기 불쑥



매사추세츠 서쪽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는 한 한인인은 서부 한인회 출범 기사를 보고 반가웠으며 서부 한인회의 연락처를 물어왔다

나타난 단체에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서천: 자유로운 민주사회에서 독과점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봉사하는 단체다. 멀리나 아성을 쌓는 일이 아니기에 서로 상생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보스톤 한인회를 어렵게 할 이유가 없다. 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뭐가 못마땅한 게 있다고 뱀방 놓겠나. 넉넉한 그릇으로 보아주시기 바란다.

한인들의 가장 큰 우려는 불협화음이다. 그동안 많은 한인회들이 눈살 찌푸리게 하는 분규를 일으켜 왔다. 서부의 시타운 정부들에게는 영문 한인회 그리고 독립적인 한인회 기관으로 활동하 시더라도 보스톤 한인회와 합회를 추진하실 생각은 없나?

서천: 저는 단언컨대, 보스톤 한인회와 불협

화음을 원치 않는다. 몇 년 전 워싱턴 D.C 한총연 25대 이정순 회장과 캘리포니아 김재권 회장이 한인회총연합회 정통성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켜 미주 한인회는 물론 전 세계 한인회가 창피해한 적이 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두고 분쟁해 서로 득도 없이 한인사회 전체에 누를 끼친 것이다. 한인이 뛰어난 민족이나 가끔은 서로를 향해 견주는 꼴불견을 보이곤 한다.

합회는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서로가 힘들다. 각자 잘하면서 함께 할 일이 있으면 서로 만나 사이 좋게 함께하는 거다. 보스톤에서 여기를 어떻게 챙길 수 있나?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곳에서 지역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이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다. 합쳐서 어려운 것보다 떨어져서 사이 좋게 잘하는 것이 좋다 생각한다.

editor@bostonkorea.com

## 서울설령탕

###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973.8880  
SeoulFoodBoston.com

# 가주 순두부

##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밤10시까지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콘티넨탈 매스 리그에서 매사추세츠 최고 득점을 기록한 학생들. 좌로부터 김재원, 천윤영, 김재문 학생

# 3명 한인학생들 북미 수학경시대회에서 최고득점

## Continental Math League에서 MA 최고득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인학생 3명이 북미주 수학경시대회에서 매사추세츠주내 최고득점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천윤영(Yunyoung Chun, 원저 8학년), 김재원(Jeremy Kim, 웰슬리 8학년), 김재문(Jae Kim 뉴튼노스 9학년) 학생 3명은 콘티넨탈 매스리그(Continental Math League)에서 매사추세츠주 최고득점자로서 지역 우승자가 됐다. 윤영 학생은 9학년 일반부(Euclidean Division)에서 우승했고, 재원과 재문 학생은 9학년 고급부(Pythagorean Division)에서 공동 우승을 하였다.

세 학생들을 오래 지도해온 뉴튼 소재 매스게임 하우스(Math Game House)의 강해정 교사에 따르면 윤영

학생은 콘티넨탈 매스리그에 올해까지 4번째 도전했으며, 재원 학생은 6번째, 재문 학생은 2번째 참가했다.

윤영 학생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수학에는 큰 관심이 없었으나 중학생이 된 이후, 도전적인 퍼즐에 마음을 집중해서 끈기다 결국 풀어나가는 재미를 발견하면서 수학을 좋아하게 되었다. 김재원 학생은 수학, 과학, 그리고 바이올린을 특히 좋아한다. 재원 학생 역시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 때 퍼즐게임을 풀어나가는 기분으로 재미를 찾으면서 많이들 두려워하는 수학을 길들이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김재문 학생은 수학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수학이 많이 쓰이는 경제학과 경영학으로 관심을 넓게 가지고 AP 미

시경제(Microeconomics)를 공부하고 있다.

미국전역과 캐나다에서 2학년-9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콘티넨탈 매스리그는 각 학년에 일반(Euclidean)과 고급(Pythagorean) 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올해는 총 150여 중학교와 40여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11월부터 3월까지 매달 한번 여섯문제 주어진 테스트와 총 다섯 번의 Meets에서 획득한 점수를 합산하여 Winner가 결정된다. 오랜 기간에 걸쳐 전개가 되므로 시험 당일의 컨디션 등으로 성과가 많이 좌우되는 일회성 경시대회와 달리 학생의 실력이 보다 정확하게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사진 제공: 서울대 미주동창회 홍보국장 이영인)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미 독립전쟁 유적지 탐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윤은상)의 산우회(회장 김정선)는 지난 5월 18일(토) 보스톤 인근 미 독립유적지 탐방 행사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화창하고 온화한 날씨에 5월의 푸른 하늘을 만끽하며 진행되었다.

동문들은 '미니트맨 역사 유적지(Minute Man National Historical Park)'의 안내소(비지팅 센터)에서 매사추세츠 주정부에서 제작한 "1775년 4월 19일 그날의 역사"를 돌아보는 다큐 영상물을 관람했다.

다큐 필름은 최신 기법과 제작자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방법을 통해 보스톤 지역이 미 독립전쟁의 시발지인 것을 간접하면서도 알기 쉽게 보여주어 참석자들의 미 역사인식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일행은 이어 산우회장 김정선 동문의 리더로 1.5마일 구간 오솔길을 따라 뉴잉글랜드 민병대와 영국군이 전투를 벌인 현장을 답사하며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피크닉 장소에서 동창회가 마련한 김밥으로 점심을 들며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의 담소도 나누고 김정선 회장이 준비한 물품선 던지기 놀이도 하면서 야외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윤은상 회장은 많은 참여에 감사

드린다며 6월 15일에 있을 동창회 정기 총회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올 2019년 6월로 임기가 끝나는 윤상래 미주동창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뉴잉글랜드 동창회 동문들 덕분에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김정선 산우회장은 6월에는 래틀스테이크 마운틴 산행, 7월에는 카사지 인디언 박물관 견학이 예정되어 있다고 공지하며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김경일 동문이 참석자를 대표해 준비를 위해 수고한 동문들에게 감사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해 모두들 적지않은 수고를 한 윤은상 회장과 김정선 산우회 회장 그리고 임원동문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이날 최고 학번인 김대식 동문이 건강 한 모습으로 참가해 후학들을 반갑게 했으며 또한 불편한 몸에도 가족들과 함께 참석한 이재신 동문을 모두 반갑게 맞았다.

6월 15일(토)에 있을 총회에 관한 이메일을 받지 못했거나 동창회 이메일에 새로 등록되기를 원하는 동문은 이메일, snuaane@gmail.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이영인 서울대 NE동창회 홍보)

bostonkorean@hotmail.com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불법 이민자 도운 뉴튼 판사 대중적 비난 고초

## 무급 면직, 사법방해 기소에 전국적 비난까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이민단속국 요원을 피해 불법 이민자를 뒷문으로 달아나게 해준 뉴튼지법 셸리 조셉 판사(51)가 사법방해 혐의로 연방 법원에 기소돼 전국적 비난에 노출되는 등 고초를 겪고 있다.

셸리 조셉 판사는 찰리 베이커 주지사로부터 판사직에 임용된 지 5개월 만에 불법이민자를 체포하려 법정 밖에 대기하고 있는 ICE 요원에게 둘러대고 이민자를 뒷문으로 도망치도록 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장면을 연출한 판사는 이후 무급 정직상태로 하루 하루를 소일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용하게 삶을 이어가던 조셉 판사는 미 전국적 이민 논쟁의 한 중간에 서게 됐다. 이민반대자들은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연방법을 무시한 사법부의 오만의 상징이라며 이 판사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모라 힐리 검찰총장은 이 연방검사 앤드류 렐링(Andrew Lelling)이 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조셉 판사는 4월 25일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조셉 판사의 변호사는 이번 연방검사의 기소가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의도 하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조셉 판사는 2명의 틴에이지 딸을 돌보며 산책 등으로 소일하고 있다.

앤드류 렐링 연방 검사는 셸리 조셉 판사와 웰슬리 맥그리거(56)법원경찰을 마약혐의로 법정에서 선 불법이민자 호세 메디나 페레스를 기소한 자신의



불법 이민자의 도피를 도와 사법방해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뉴튼 지법 셸리 조셉 판사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이번 케이스가 “이민법의 문제가 아닌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지역 카운티 검사장 중 보수성향을 견지한 마이클 오키페 검사장은 조셉 판사가 이민단속관에게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선 녹음기를 끄고 이민자가 뒷문으로 나가도록 가르쳐주는 등 비밀리에 행동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셉 판사는 상사에게 이에 대해 거짓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오키페 검사장은 이것은 일종의 “속임수(subterfuge)”라며, 차라리 공개적으로 이민단속국의 개입을 거부했었다면 더 명분이 있는 일이었다고 자신도 충분히 지지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레이텔 폴린스

서퍽카운티 검사장과 매리언 라이언미 들섹스카운티 검사장은 연방정부에 이민단속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셉판사는 뉴잉글랜드 법대를 졸업하고 전 스캇 하시버거 전 MA 검찰총장 밑에서 갱, 마약 등 강력법 검사를 역임했으며 검사직을 사퇴한 후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약했다. 하시버거 전 총장의 추천으로 지난 2017년 말 판사로 임명됐다. 주지사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임명을 승인했다.

은퇴한 캐롤 볼(Carol Ball) 서퍽고 등원판 판사는 “우리는 이번 판사 기소 건이 사회적 대재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이 (기소건)을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분노적 비난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고 황동재 대표가 지난해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던 당시 추미애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

## 황동재 보스톤민주연합 대표 별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황동재 보스톤민주연합 대표가 5월 16일 오후 9시 30분 병원에서 수술 도중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65세.

황동재 보스톤 민주연합 대표는 한달전 큰 심장수술을 받았으며 지난주 갑작스레 이상을 느껴 응급실을 찾았다가 수술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황대표의 웨이크는 지난 19일 일요일 오후 진행됐으며 짧은 웨이크에 참석 못한 한인들을 위해 유가족들은 25일 오후 6시 7 Faulkner street Ayer ma 01432에서 추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동재 씨는 또한 북미민주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2

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부위원장에 공식 임명돼 활동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는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직이다.

경남 고성 출신인 황대표는 1955년 미국으로 이민해 보스톤 근교에서 24년을 거주했다. 슬하에는 2남2녀와 1 손자를 두었다. 평생을 의료기기기술자(Medical Device Technician)로 일해왔다.

황대표의 한 지인은 “불과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서로 통화하며 이야기 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황망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소회를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수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 'We Need Numbers to Tell Our Story'

▶▶From page 1

one-size-fits-all message on the census for Indian Country, Ditas Katague, director of CA Complete Count Census 2020, the state's complete count committee, acknowledged. She pointed out how in 2010, the Two Rivers Tribune had to reject two consecutive ads as culturally inappropriate - one showed Plains Indians walking through fields towards teepees, the other depicted an Indian man in front of a Los Angeles skyscraper.

Two Rivers Tribune's readership of Hoopa Indians have lived in the redwood forests of Northern California for 20,000 years. Native media embedded in their communities are key to customizing the message for each tribe, Katague pointed out.

The stakes couldn't be higher. The 2010 Census, considered the most accurate of any decennial census taken since 1790, still missed almost 5% of Native Americans living on reservations and almost 12% of those off the rez. As a result, the native community has lost out on at least 4.9% of its share of hundreds of billions in government allocations based on census data.

The undercount has a national effec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s "Counting for Dollars 2020" study estimates that for the 16 large federal programs that together spend \$589 billion annually based on census data, the loss comes to \$1,838 per person. For California, the same study pegs that amount at \$1,958 per person. Mark Trahan, editor of Indian Country Today, says for the Native American population, the number is closer to \$3,000 each.

"Indian Country is so diverse in general, but in California - the state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Native Americans in the country - that diversity increases exponentially," said Jourdan Bennett-

Begaye, a reporter with Indian Country Today. "California has 109 recognized tribes, and there are so many more. Each tribe, each community, is different, with our own identities, our own ways."

Daniel Golding runs KUAV, the radio station serving the Quechan Indian Tribe in the southeastern corner of the state - "California's second-largest tribe you've never heard of," he joked. To underscore the diversity, he recalled seeing a coyote on the road while touring a different reservation. "For one tribe, crossing paths with a coyote brings bad luck. For my tribe, it's a sign of good fortune."

The sheer isolation of tribal lands makes tallying people a challenge. Eric Ortega, of the Pala Indian Reservation in San Diego County, notes that just having a street address, instead of a post-office box, is a recent innovation.

In 2010, the Census Bureau began community outreach efforts two or three years before census-taking started. That was very helpful, according to Brian Golding, Daniel Golding's brother, head of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Quechan tribe. Local residents helped enumerators find where people lived, he said, and more importantly, worked alongside enumerators to mitigate a mistrust of strangers that might have led to fewer people being counted.

That sort of outreach hasn't been seen in the run-up to 2020, Golding says. "This go-round, right out the gate, is significantly weaker in outreach to Indian Country."

The Census Bureau has been underfunded throughout the 2010s, affecting its ability to do its typical preparations such as community outreach and thorough field-testing of proposed changes.

And, in a new cost-cutting effort, the Census Bureau plans to have people

complete their questionnaires online after getting a notice in the mail. But not everybody in Indian Country has ready access to a computer.

"The online opportunity may be helpful," Brian Golding says. "The younger population tends to have smart phones and are generally tech-savvy." But they also tend to be more mobile and less concerned about responding, he adds. "They're more likely to use tech, but least likely to respond."

Fully 73% of Native people in California live in cities and smaller towns, presumably making them relatively accessible. But Lorenda Sanchez, who heads the California Indian Manpower Consortium in Sacramento, says it's actually harder to count Native people in urban communities because they're dispersed, not clustered in a homogenous community. This is particularly true in cities too small to have strong, sizable identity groups in their midst but large enough to be diverse.

Sanchez, whose organization includes 104 of the state's tribes and 68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has worked on census matters for 41 years. She pegs the undercount for Native Americans in California at between 10% and 25% in urban communities, with the larger cities at the lower end of the range. The 2010 Census counted 723,000 Native Americans in California, almost evenly split between full-blooded and mixed-race. Los Angeles has about 140,000, the Bay Area about 75,000.

The April 4 meeting, held in the governor's conference room in the state Capitol, provided a call to action for attendees.

"One of my takeaways was that localized media in each of the communities that attended are ready to raise awareness and address concerns in each of their



James Ramos (D-San Bernardino), the first Native American elected to the California State Assembly, addressed a gathering of Native American media and state workers ahead of the upcoming 2020 Census at a meeting in the governor's conference room on April 4. (Photo by Lynn Chan, Ethnic Media Services)

regions," observed Frank Blanquet of FNX TV, who is producing a segment on the conversation.

"We all understand how the census affects us and our communities," Bennett-Begaye remarked. "We're figuring out how to communicate that to our diverse audiences."

Allie Hostler, editor of the Two Rivers Tribune, says her major challenge is limited resources, a sentiment shared by virtually all attendees.

For Terria Smith of the Torres Martinez Desert Cahuilla Indians, editor of News from Native California, which covers tribal news statewide, trust is the underlying issue Native media must address. "There is no trust right now for the federal government at all, as far as a lot of people go. Then you're going to have to combat people's apathy. What is the benefit of doing all of this?"

"I understand people's distress, but it also affects a lot of our federal programs," Bennett-Begaye countered.

"I'm also thinking about the younger kids. The number one population that's undercounted are kids 0-5, and Native youth are our largest population in Indian Country."

"If we can get that message back to our people, and we can share that with them, they just may be better involved," noted Joe Orozco, longtime station manager of the Hoopa reservation's radio station KIDE, 50 miles north of Eureka. "So I'm looking forward to doing what I can do to make that happen."

"Let's give them some more numbers that they can count on, and just keep adding to our story," he concluded as the convening ended.

"That's the only thing we have. We need the numbers to tell our story."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RE/MAX**

**Westwood  
Medfield  
Dover  
Sharon**  
(4곳 모두 학군 좋고 안전한 타운)

주택 구매와 판매  
모두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Lisa Jung Nichols**  
REALTOR

**RE/MAX DISTINCT ADVANTAGE**  
736 High Street, Westwood, MA 02090  
Office: (781) 326-9200 Cell: (857) 225-0307  
Email: Lisahnichols@yahoo.com



# Payday Lending Proves It's Expensive To Be Poor In America

By Morris Pearl

Each year, 12 million Americans will take out a payday loan, and the majority of them won't be able to afford repayment, trapping them in a vicious debt cycle with sky high, exorbitant annual interest rates of up to 600 percent. If you're asking yourself why someone would voluntarily agree to pay a 600 percent interest rate, it's because it's a bit less voluntary than you think. At this very moment, 40 percent of Americans don't have \$400 on hand in case of an emergency. That's over 130 million people who have nothing when a car accident, a health problem, or a job layoff occurs. Desperate times call for desperate measures, and there's no shortage of lenders willing to make a quick buck off of someone with nowhere else to turn.

Last week, Representative Alexandria Ocasio-Cortez and Senator Bernie Sanders introduced the Loan Shark Prevention Act to offer a better option to those 12 million. The bill is an ambitious effort to cap consumer loan interest rates at 15 percent, and introduce postal banking to ensure that the most vulnerable Americans still have access to credit when they need it most.

This is a commendable first step to address a massive, oft-ignored credit problem in the American economy.

As of 2019, Americans owe over \$1 trillion in credit card debt, with an average debt of around \$4,293 per per-



Each year, 12 million Americans will take out a payday loan, and the majority of them won't be able to afford repayment, trapping them in a vicious debt cycle with sky high, exorbitant annual interest rates of up to 600 percent.

son. Of all the millions of Americans who owe, only 40 percent make enough monthly to pay off their debt each month. That means a whopping 60 percent of Americans with credit card debt owe thousands of dollars they can't afford to pay off, with annual interest rates ranging between 15 and 23 percent - but that doesn't even take into account the penalties for late payments, surcharges, and fees common to most credit cards.

Crunching the numbers on payday lending presents a similarly bleak portrait of exploitation. Payday lenders offer short-term loans at extremely high interest rates as an alleged quick-fix, but 4 out of every 5 loan recipients end up renewing their

loans because they can't repay.

For too long, payday lenders and credit card companies have secured their profit margins by scraping away at the already scant incomes of the poorest working Americans. These companies have trapped millions in a vicious cycle of debt and minimal repayments at the same time that the majority of these loan-seekers struggle under rising costs of living and stagnant wages. The Loan Shark Prevention Act doesn't tackle those root causes of desperation, but it does take the crucial step of stopping lenders from making a bad situation immeasurably worse for an American worker.

Clearly, we need a better option to

ensure millions of Americans have safe and secure access to credit. The bill proposes basic postal banking and short-term, government-guaranteed loans at the nation's 31,000 post offices, an idea shortlisted by several Democratic 2020 candidates as well. This idea is one of several possible options to extend credit, and I welcome the dialogue.

At the core of the issue, however, is an inconvenient truth - it's expensive to be poor in America. Payday lenders prosper because millions among us can't afford the dignity of a basic lifestyle amid low wages, rising housing costs, and surging consumer debt. The most vulnerable people in this country are often one

emergency away from financial ruin, and each and every time a payday lender profits off that precariousness, it deepens our already vast inequality divide. If we have any chance of fixing our rigged economy, then Congress must offer real, substantive, and immediate solutions to the millions of Americans who are crushed under the weight of that inequality. The American worker - quite literally - cannot afford to wait.

*Morris Pearl is a former managing director at BlackRock, Inc. and Chair of the Patriotic Millionaires, a coalition of high-net worth Americans concerned about the destabilizing concentration of wealth and power in the U.S.*

한인 2세의 영문 기고를 환영합니다! We are waiting for the English article written by Korean 2nd generation!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클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티보플레이 1+1 호도이벤트**

우리집에 티보플레이 설치하면 무료! 티보플레이 1+1 호도이벤트

다락아리크광학렌진 NEW 티보플레이

617-949-1766

##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특별가 이벤트

#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40대 50대도 가능한  
라식라섹!!!  
지금까지 미룬 라식수술의  
기회가 다시 찾아  
왔습니다.

## 1 휴람 안 종합검진 (베이직 : 소요시간 30~40분 / 프리미엄 : 1시간 30분)

40대가 되실까요? 눈도 좀처럼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 1) 휴람 베이직 안검진 : 10만원 (10여 가지 검사)

- 시력상태, 색내장, 녹내장, 망막이상여부 기본질환 유무 확인
- 기본시력검사(안안, 안경치광, 타각력, 굴절력, 노안) + 세극등현미경, 안압, 안저촬영

### 2) 휴람 프리미엄 안검진 : 25만원 (50여 가지 검사)

- 각막부터 시신경 생체 구조구상까지의 정밀검진, 2인마다 한명씩은 필요합니다.
- 휴람 베이직+녹내장+색내장+안구건조증+시신경영양+기타안정밀검사 포함

## 2 노안 잡는 노인성 백내장 수술 (노안 + 백내장 해결)

오래 사용하신 노화된 백내장 수정체 대신 깨끗한 뉴-수정체로 밝은 시력을 되찾으세요~  
선명도 보고, 컴퓨터도 보고, 시원하게 쬔 쬔한 풍경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1) 노안교정 백내장 : 299만원 (양안)

### 2) 다초점 인공수정체 노안 백내장 : 700만원

## 3 4060 노안 라식라섹 수술 (양안)

육아와 업무로 라식기회를 놓치셨나요?

노안이 와도 레이저 라식라섹수술로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콧등면 프리젠프트 (노안 해결)

### 150만원 (프리미엄 안검사 포함)

## 4 2030 라식라섹

### 130만원 (DNA(10만원 상당), 안종합검진 포함)

※ 수술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안 라식라섹은 당일 수술가능합니다.

※ 수술에 제한된 약값은 개인부담이며, 안종합검진 진료후 처방비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이 필요한 경우?



육아와 업무로  
라식기회를  
놓치셨다면...

20~30대 여러가지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레이저를 이용한  
한 노안교정이 가능합니다.



안경과 돋보기  
사용이  
불편한 경우

책과 신문, 핸드폰 등을  
돋보기를 통해 봐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친구보다  
노안이 빨리  
온 경우

나도 모르게 온 눈의  
노화현상을  
개선해 드립니다.



백내장과 함께  
노안 교정을  
원하실 경우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온 경우  
[렌즈삽입수술]을 통하여 백내장  
을 치료하고 노안도 개선 할 수  
있는 수술방법입니다.



허오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am@hura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 코리아 617-949-1766



# 보스톤 경찰 마리화나 적극 단속 예고

## 이번 주말 보스톤 대규모 야외 음악 축제 공공장소 마리화나 흡연은 여전히 불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이번 주말에 보스톤에서 펼쳐질 대규모 음악 축제를 앞두고 경찰이 마리화나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음악 축제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유흥용 마리화나의 판매와 사용이 합법화 된 이후로 대규모 군중을 상대로 한 마리화나 사용과 단속의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매년 열리는 보스톤의 음악 축제인 보스톤 콜링(Boston Calling)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하버드 야외 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는 이 야외 음악 축제에서 마리화나 연기가 자욱하게 뒤덮이는 일은 종종 있어 왔다.

의료 전문가들은 마리화나를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흡연하게 되면 간접 흡연을 통해 마리화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마리화나 역시 담배와 마찬가지로 연기와 냄새 때문에 비흡연자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보스톤 경찰서 소속 존 보일 경사는

“누구라도 공공 장소에서 마리화나 연기를 피우면 소환장을 받게 될 것이다. 보스톤 콜링은 물론 어떤 행사라도 마찬가지다. 보스톤 시에서 열리는 행사는 매사추세츠 주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유흥용 마리화나의 판매와 사용이 합법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 장소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지난해 보스톤 콜링 공연 장면

캠브리지 경찰서 역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음악 축제에 참가하는 이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1세 미만인 사람은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벌금을 물게 되고, 21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온스를 초과하여 마리화나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보스톤 콜링 주최측은 어떠한 종류의 흡연도 행사 장소에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화나나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 담배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스톤 콜링 관계자들은 행사 장소에서 흡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jsi@bostonkorea.com



미국 내 660개 드레스반 매장이 모두 문을 닫는다

## 드레스반 미국 내 650개 매장 모두 폐쇄 예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60여년 동안 여성 의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해왔던 드레스반(Dressbarn)이 모든 매장 문을 닫게 되었다. 드레스반을 소유하고 있는 아세나 리테일 그룹은 지난 20일, 미국 내 650개 드레스반 매장이 모두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매사추세츠 주에는 24개의 드레스반 매장이 있다.

스티븐 테일러 CEO는 점포 폐쇄 결정이 어렵지만 필요한 일이었다며 “오늘날 소매업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오랫동안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 고 설명했다. 앤 테일러, 레인 브라이언트 등의 의류 브랜드도 소유하고 있는 아

세나 그룹은 드레스반을 폐쇄하고 수익이 나는 브랜드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드레스반에서 일하고 있는 6,800여명의 직원들은 각 매장이 언제 문을 닫을지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게 된다. 드레스반은 직원들이 순조롭게 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활황이지만 오프라인 소매업계는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동안 약 7천 개의 소매업 가게가 문을 닫았으며, 아직 절반이 채 지나지 않은 올해는 벌써 6천여 개의 가게가 문을 닫았다.

jsi@bostonkorea.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료,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상인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통상대출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나의노후?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화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 MA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기 이름은

남자 아기 이름 벤자민 가장 많아  
엠마는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이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벤자민 (Benjamin)” 혹은 “엠마 (Emma)” 라는 이름의 어린 아이들을 많이 봤거나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 두 이름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2년 연속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많이 지어진 이름이다.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는 지난 21일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난 아기들의 이름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다. 미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사회보장국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생아들에 대한 정보는 사회보장국에 제일 먼저 등록된다.

2018년 한해 동안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아기 이름과 미국 전체에서 인기 있는 아기 이름은 거의 비슷하다. 10위권 내의 이름은 거의 유사하지만 그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전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아이 이름은 “리암(Liam)” 이며,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벤자민” 은 미국 전체에서 6위다.

사회보장국에는 1880년부터 신생아들의 이름이 등록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의 이름이 사회보장국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한 건 1997년부터이다.

전국적으로 가장 빠르게 인기가 치솟고 있는 여자 아이의 이름은 “메간



MA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기 이름은 벤자민과 엠마이다

(Meghan)” 이다. 2017년에 703명에 불과하던 메간은, 2018년에는 1,40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남자 아이의 이름 중에서는 제네시스(Genesis)와 세인트(Saint)가 빠르게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이름이다.

다음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작년에 태어난 아기 이름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이름을 가진 아기의 숫자이다.

## 여자

1. Emma (405)
2. Olivia (394)
3. Charlotte (336)
4. Sophia (336)
5. Isabella (299)
6. Ava (260)

7. Amelia (243)
8. Mia (243)
9. Evelyn (233)
10. Abigail (229)

## 남자

1. Benjamin (426)
2. Liam (394)
3. James (371)
4. Lucas (363)
5. William (362)
6. Noah (356)
7. Logan (317)
8. Henry (311)
9. Owen (286)
10. Theodore (276)

jsi@bostonkorea.com



브루클라인 쿨리지코너 브루거스 베이글(Bruegger's Bagels)

## 브루클라인 브루거스 베이글 보건규정 위반 10일간 영업정지

브루클라인 보건부, 위배설물로 10일간 영업정지명령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브루클라인 쿨리지코너 브루거스 베이글(Bruegger's Bagels)이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브루클라인 보건부는 인스펙션을 13일 실시한 결과 위배설물이 음식물에서 발견돼 티운 규정을 위반했다며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브루클라인 보건부 관계자는 인스펙션 결과 "위의 배설물이 음식과 선반, 그리고 식당 바닥에서도 발견됐다"며 "레스토랑은 뚫린 쥐구멍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철저히 청소하고 면허증을 가진 위생직사를 통해 쥐를 박멸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브루거스 베이글 측은 5월 16일 내부수리 공사 사인을 걸고 휴업에 들어갔다.

비록 브루거스 베이글은 영업정지에 들어갔지만 보건 규정을 위반한 브루클라인 내식당은 홍콩카페

II(Hong Kong Cafe II)로 2월 22일 음식 중독 사례가 보고됐다. 인스펙션 결과 위배설물과 지하에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것이 밝혀졌다.

베이스테이트푸드샵(Bay State Food Shops)은 3월 20일 쓰레기와 지저분한 물건 박스들이 식당 뒤에 던져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이 외에도 골든템플(Golden Temple)은 3월 19일 보건규정위반 경고를 받았고, 시환 거메이(Sichuan Gourmet)는 4월 4일 바퀴벌레와 테이블 닦개를 멸균세제에 담구지 않은 것으로 경고를 받았다. 특히 시환 거메이의 만두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의 불만도 4월 1일 접수됐다.

우어바이와우바베큐(Wu Er by WOW Barbecue)는 4월 23일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쳐 음식찌꺼기가 땅에 떨어져 경고를 받았다.

hsb@bostonkorea.com

##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 분노한 트럼프, 민주당 지도부 불러놓고 민주당 조사 추진 이유 3분만에 자리 떠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 결렬...의회조사·탄핵에 '불쾌감'  
트위터로 비판 계속해..."민주당이 美 찢어놓고 있다"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했지만 3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민주당이 자신에 대해 의회 차원의 허위 조사를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의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 관련 회의가 열렸다. 애초 이 자리에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장에 들어간 지 3분 만에 문을 박차고 나와 기자들이 모여있던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이동,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그는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싼 로버트 뮐러 특별검사팀 수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도 허위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복한 마음으로 회의장에 들어가는 대신 내가 은혜를 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봤다"며 "나는 슈머 대표와 펠로시 의장에게 인프라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순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에 이러한 가짜 조사를 끝내라고 말했다"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민주당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나는 은혜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는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미국을 찢어놓고 있지만 나는 계속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민주당 지도부와 회담이 결렬된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국민을 위한 기록을 세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백악관이 특검 수사 관련 의회 청문회에 비협조적이라며 의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는 러시아 스캔들 및 체납 의혹 등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대통령 탄핵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돌발 행동에 분개하며 오히려 탄핵 가능성을 더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방해를 하고, 은폐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펠로시 의장은 기자회견 장소에 '답답은 없다' '방해는 없다'라는 표어가 미리 부착된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면담을 꺼려고 의도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슈머 원내대표도 "백악관에서 무슨일이 벌어졌는지 보면 입이 썩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wonjun44@news1.kr

## 변기보다 더러운 공항 보안검색대 바구니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내 수십개 공항의 보안검색대 바구니가 항균 제품으로 교체되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22일 보도했다.

지난 2016년 핀란드 헬싱키반티공항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보안검색대 바구니에는 계단 난간이나 화장실 변기보다 더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공항 내 다양한 표면에서 표본을 채취한 결과,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바구니에서 가장 많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 공항들이 새로운 제품을 도입한다. 바구니 공급 업체인 시큐리티포인트미디어는 미국 30개 이상 공항에 항균 처리된 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태까지 덴버와 녹스빌, 테네시, 미네아폴리스, 내슈빌, 탬파, 워싱턴 D.C 등 7개 도시 공항에 새 제품이 도입됐고, 다른 15곳 공항은 오는 7월 초까지 교체를 완료한다.

시큐리티포인트미디어는 성명을 통해 "항균 기능은 시큐어트레이에서 업그레이드된 한 부분"이라며 더 넓어진 바구니 면적 등도 보안 검색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news1.kr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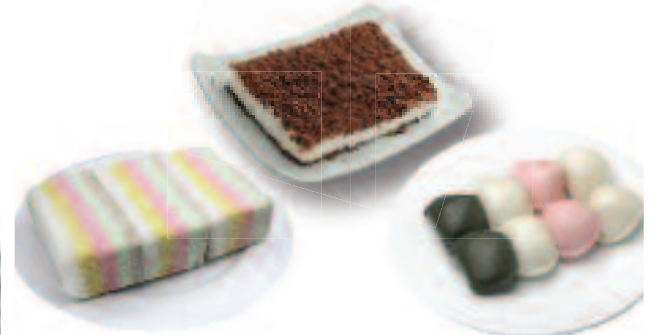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 형제 떡집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 갈 길 멀어지는 미중 무역협상 평행선만 확인

므누신 "中 이전 협상 기초해야 새로운 협상 가능"  
"향후 구체적인 무역 회담 계획은 아직 없어"

(서울=뉴스1) 김정환, 이창규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무역 협상의 여지는 계속 열어놓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전조건에 대한 서로의 입장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교착상태인 무역협상을 재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이전의 협상을 기초로 새로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면 미국 정부가 중국과 새로운 회담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으로부터 미국 농가를 방어할 것"이라며 "소비자와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상품들을 관세에서 제외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미국 농부들을 지지한다"며 "중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전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므누신 미국 장관은 이보다 앞서 중국과의 향후 구체적인 무역 회담 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청문회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 CNBC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 방문은 예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미국 무역 대표단을 베이징으로 초청했다.

미국은 지난 10일 중국제품 200억 달러에 대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다. 중국은 13일 이에 반발해 미국 제품 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최고 25%로 올렸다. 게다가 미국은 나머지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5일에는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블랙리스트(거래금지 리스트)에 올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중 무역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글로벌 양대 경제대국 간의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은 중국측 협상 대표들이 수개월 동안 진행된 협상 합의사항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모색하면서부터 엇박자가 나 현재 교착상태에 빠졌다.

한편, 미국은 감시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보안업체인 학비전(海康威視)과 다화커지(大華科技) 등을 화웨이에 이어 제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비전 등이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화웨이의 전철을 밟게 된다.

acenes@news1.kr

# 테슬라 고가 모델들 또 가격인하 판매량 급감이 원인?

대당 2천~3천달러 인하...한달 전 인상분 상쇄  
1분기 판매 31% 급감...주가 올들어 38% 급락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의 자동차 기업 테슬라가 가장 비싼 두 모델 가격을 인하했다. 이에 그동안 판매량이 급감한 것이 원인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외신들이 21일 보도했다.

테슬라는 지난 20일 모델S 세단 가격을 3000달러, 모델X SUV 가격을 2000달러씩 각각 인하했다. 테슬라는 성명에서 이를 다른 자동차 회사들처럼 가격과 이용 가능한 옵션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인하를 심상치않게 바라보고 있다.

미국의 전기 자동차 전문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약 3개월간 세 차레나 모델S와 모델X의 가격인하가 있었다. 가격을 인하한 이번 모델들은 약 한 달 전 사용시간이 긴 배터리를 장착하고 새 드라이브 시스템과 정지를 추가했다며 가격을 올렸던 모델들이다.

테슬라는 앞서 1월에는 모델S와 모델X, 모델3의 최저 가격을 대당 2000달러 인하했다. 7500달러의 연방정부 세금공제 만료가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에서였다. 지난해 7월 누적 판매량 20만대를 넘긴 테슬라는 연말까지 보조금 혜택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이번 성명서에는 판매 둔화가 가격인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은 없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흑자 전환이나 사업성장 능력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투자자들의 불만과 신차를 개발하라는 요구로 인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205.08달러를 기록하며 마감됐다. 올해 들어 주가는 38% 떨어져 시가총



액은 200억달러 이상 쪼그라든 365억달러가 됐다. 전날엔 주가가 장중 한때 197달러에 거래되며 2016년 12월 이후 처음 200달러를 밑돌았다. 10거래일 동안 20% 가깝게 하락했다.

시장조사업체 나비간트 리서치의 샘 아부엘사미드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사업의 본질(펀더멘탈)은 늘 흔들렸지만 주가는 이 회사가 엄청난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로 유지되어왔다"면서 "하지만 사람들은 지난 한 달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에게 지난 분기는 판매가 31% 급감하는 등 최근 2년래 최악의 시기였다. 머스크 CEO는 2분기도 손실이 나더라도 3분기에는 흑자를 다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격인하로 모델S의 최저가격은 7만 1250달러가 됐고 모델X는 7만 1950달러가 됐다. 테슬라는 성명에서 "각각 2~3%의 가격인하"라면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3는 지난주에 400달러 인상해 최저가가 3만 5400달러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도 이 작은 변화는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ungaungae@news.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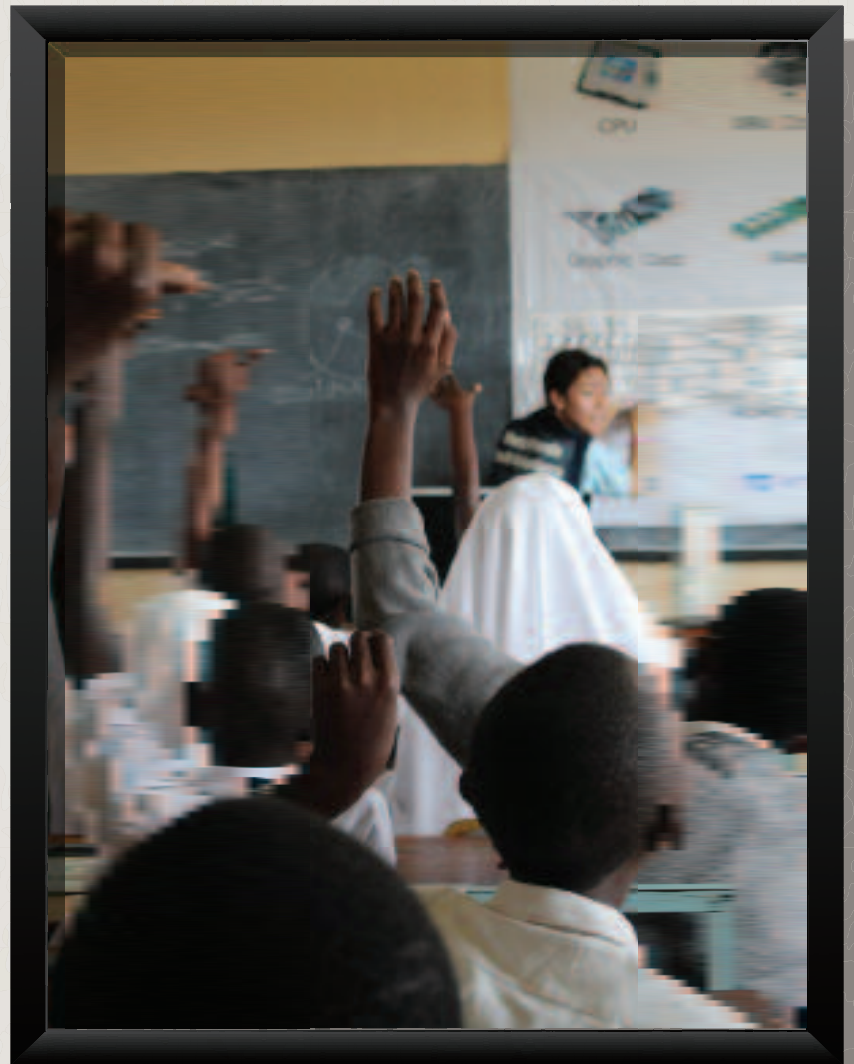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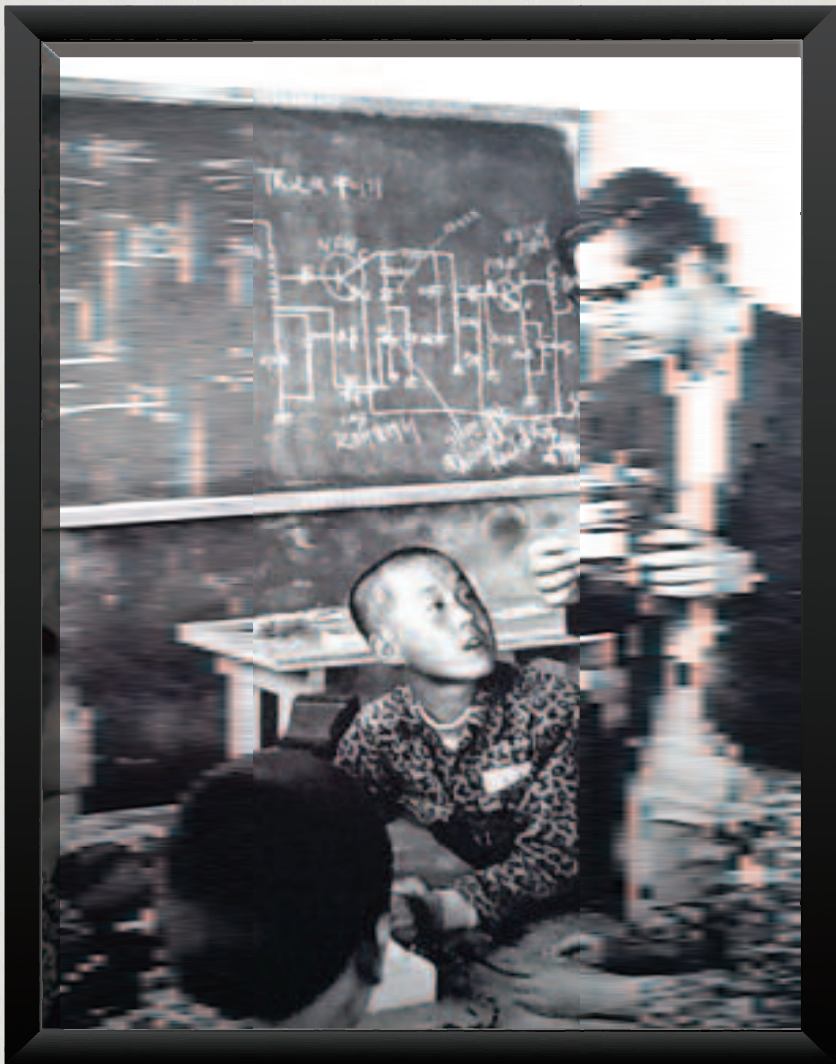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FOK, KOICA 합동 사진전

Photo Exhibition on Volunteerism: Friends of Korea and KOICA



- o 제목: Photo Exhibition on Volunteerism: Friends of Korea and KOICA
- o 일시: 2019년 5월 28일~31일
- o 장소: Massachusetts State House 4층 로비
- o 행사내용: 1960-80년대 한국에 파견되었던 한국평화봉사단원(Peace Corps)들의 모임인 프렌즈 오브 코리아(Friends of Korea)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활동 관련 사진 합동 전시
- o 후원: 주보스턴 총영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프렌즈 오브 코리아(FOK), 매사추세츠 주의회

\* 행사 리셉션은 5.28(화) 2시, Senate Room 428호에서 개최될 예정



# 3급기밀 vs 한국당 현실부정,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공방

강효상 "국민 알권리 차원...의정활동 방해, 재갈물리기"  
靑 "부정·비리 공익제보와는 달라...인사조치 등 곧 발표"

(서울=뉴스1) 강성규, 김세현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가운데, 청와대와 강 의원 사이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며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강 의원이 23일 청와대의 공무원 감찰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이자 공무원·야당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자, 청와대는 양 정상간 통화내용은 '3급 국가 기밀'이라고 재차 못박으며 강경대응 모드로 전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갖고, 담당 공무원의 휴대폰을 조사하는 게 촛불정부, 21세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이어 "청와대의 감찰은 흔들리는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공무원과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의 무능외교를 비판해 온 본 의원에게 한 보복이며 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공무원의 기밀누설죄 등 위법성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북한 발사체 같은 것은 안 밝히고 왜 엉뚱한 소동을 일으키는 지 모르겠다"며 "그게 무슨 기밀인가. 국민의 알권리"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상간 통화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라며 "공익제보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간 통화내용이 누설

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그 부분이 비리·부정을 외부에 알리는 공익제보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에 이 관계자는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에게 내용을 전달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외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고, 유출한 본인도 누설에 대해 시인했다"라며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감찰결과를 외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휴대폰 임의제출 등을 통한 대상자 감찰에 대해 "조사방법인 휴대폰 감찰에 대해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이뤄져 전혀 불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강 의원의 소속 정당인 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질적인 '현실부정'과 '책임전가'가 이번에도 드러났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국민에게 강 의원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뒤로는 외교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을 색출한다

며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은 정상외교를 비롯해서 대통령의 모든 활동 내용을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불리한 사실은 숨기면서 청와대가 알려주는 대로만 알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sgkk@news1.kr

## 나경원, 구결외교 민낯 들기자 공무원에 책임 전가

한국당, 공무원 휴대전화 사찰에 고발·수사의뢰 하기로

(서울=뉴스1) 이호승, 강성규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구결외교의 민낯을 들기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공무원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 유출되자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한 것과 관련, "책임은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우고 유아무야 넘어가지만 사실상 공무원 탄압이 심각하고,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밖으로는 구결, 안으로는 (국민을) 기만하고 (공무원을) 탄압하는 정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사실상 강요된 강제제출일 뿐,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직권 남용"이라며 "반복되는 공무원 휴대전화 사찰, 기본권을 침해하고 폭압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이 알아야 할 외교 현안을 사고는 청와대가 치고, 책임은 외교부 공무원에게 묻는 일이 계속되고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사찰 대상·수단·방법이 야만적이라고 욕하더니 욕하면서 배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휴대전화 사찰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밝혔다.

김종석 의원도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전화 조사는 헌법의 영장주의를 강탈한 것"이라며 "상대방의 정보, 이메일, 포털 검색 등이 감찰 자료에 포함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ys047@news1.kr

## 정의당 기밀누설 강효상, 선 넘었다 국가 공격하고 국격 파괴

"인맥 통해 비밀 취득하고 누설"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의당은 23일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이 강효상 자유한국당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서 국가를 공격하고 국격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만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기밀을 자신의 인맥을 통해 취득하고 누설했다"며 "야당의 의무는 정부를 견

제하고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국민을 대신해 싸우는 일이다. 그러나 그 목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하고 그 한계는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도"라고 했다.

이어 "대화의 양 당사자국은 한국과 미국이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국가기밀이라면 어떤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긴밀한 대화를 나누겠는가"라며 "국가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은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해당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sekim@news1.kr



최석 정의당 대변인



# H MART

##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MAY 24th - MAY 30th, 2019

## GRILLED BULGOGI SKEWER BULGOGI REINVENTED! TRY THIS RECIPE FOR BULGOGI IN A NEW AND DELICIOUS WAY FOR YOUR NEXT BBQ!

H마트와 함께하는 메모리얼데이 바베큐 파티! 달콤 짭조름한 불고기의 색다른 버전, 불고기 꼬치구이로 메모리얼 데이 바베큐 파티를 빛내보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ENJOY A HEARTY, HEALTHY, & HAPPY BBQ WITH YOUR FAMILY & FRIENDS THIS MEMORIAL DAY!

## NEW RESTAURANT PARTNE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CONTACT: msh@hmart.com



|                                                            |                                                                             |                                                                      |                                                  |                                                                          |
|------------------------------------------------------------|-----------------------------------------------------------------------------|----------------------------------------------------------------------|--------------------------------------------------|--------------------------------------------------------------------------|
| <p>Korean Singo Pear<br/>한국산 신고배</p> <p><b>\$22.99</b></p> | <p>Washington Fuji Apple Premium<br/>원상봉 후지사과 프리미엄</p> <p><b>\$1.79</b></p> | <p>Oriental Sweet Potato Medium<br/>고구마 미디엄</p> <p><b>\$1.79</b></p> | <p>Jackfruit<br/>잭 프루트</p> <p><b>\$0.99</b></p>  | <p>Nagaimo<br/>일본 마</p> <p><b>\$3.99</b></p>                             |
| <p>Kabocha<br/>단호박</p> <p><b>\$0.99</b></p>                | <p>Lotus Root<br/>연근</p> <p><b>\$1.99</b></p>                               | <p>Gobo<br/>우엉</p> <p><b>\$1.99</b></p>                              | <p>Korean Melon<br/>참외</p> <p><b>\$17.99</b></p> | <p>JINGA Tofu<br/>진가네 두부 Firm/Soft - 16oz./pkg.</p> <p><b>\$0.99</b></p> |

|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
|------------------------------------------------------------------------------|-----------------------------------------------------------------------------|-------------------------------------------------------------------------------------------|-----------------------------------------------------------------------------|
| <p>Boneless Beef Ribeye Steak<br/>등심 스테이크</p> <p><b>\$9.99</b></p>           | <p>Beef Top Blade Steak<br/>부채살 스테이크</p> <p><b>\$6.99</b></p>               | <p>TONGTONGBAY Short Neck Clam Meat 1 lb./pkg.<br/>통통배 줄깃줄깃 바지락살</p> <p><b>\$3.99</b></p> | <p>TONGTONGBAY Dried Anchovy<br/>통통배 뽕음말치 5oz./pkg.</p> <p><b>2\$10</b></p> |
| <p>Pork Spare Ribs for BBQ<br/>돼지 갈비</p> <p><b>\$3.99</b></p>                | <p>Chicken Tenderloin<br/>닭 안심</p> <p><b>\$2.99</b></p>                     | <p>TONGTONGBAY Oyster from Blue Ocean<br/>통통배 청정생굴</p> <p><b>2\$6</b></p>                 | <p>TONGTONGBAY Cooked White Clam<br/>통통배 백합조개</p> <p><b>2\$5</b></p>        |
| <p>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br/>바베큐용 냉동 삼겹살</p> <p><b>\$5.99</b></p> | <p>Marinated Sliced Beef Short Rib-LA<br/>양념 LA갈비</p> <p><b>\$12.99</b></p> | <p>TONGTONGBAY Seasoned Dried Squid/Sliced<br/>통통배 훈진미 오징어채</p> <p><b>\$16.99</b></p>     | <p>Salmon Steak<br/>연어 스테이크</p> <p><b>\$6.99</b></p>                        |

|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                                                                                                              |                                                                                                   |                                                                                                      |
|-------------------------------------------------------------------------------------|--------------------------------------------------------------------------------------------------------------|---------------------------------------------------------------------------------------------------|------------------------------------------------------------------------------------------------------|
| <p>HARU HARU Medium Grain Filled Rice<br/>하루하루 마이 쌀</p> <p><b>\$9.99</b></p>        | <p>CJ Cooked White Rice<br/>CJ 찰반 밥스</p> <p><b>\$10.99</b></p>                                               | <p>NANYANG French Cafe Coffee Mix<br/>남양 프렌치 카페 커피 믹스</p> <p><b>\$10.99</b></p>                   | <p>SHIRAKU 100% Pure Sesame Oil<br/>시라쿠 100% 참깨유</p> <p><b>\$9.99</b></p>                            |
| <p>NISHIMOTO Sekka Premium Medium Grain Rice<br/>니시모토 세카 쌀</p> <p><b>\$9.99</b></p> | <p>CJ Bam Bam Medium Brown Rice &amp; Brown Sweet Rice<br/>CJ 바밤바 중미 &amp; 현미 찰쌀 반</p> <p><b>\$14.99</b></p> | <p>NONGSHIM Shin Ramyun Cup Noodle Soup<br/>농심 신라면 컵</p> <p><b>\$3.99</b></p>                     | <p>PULMUONE Vietnamese Pho<br/>풀무원 베트남 쌀국수 포</p> <p><b>\$4.99</b></p>                                |
| <p>THREE CRABS BRAND Fish Sauce<br/>삼개 새우 소스</p> <p><b>\$3.99</b></p>               | <p>BOHAE Mellow Prime Plum Extract Concentrate<br/>보해 매원 프리미엄 매실 엑스</p> <p><b>\$14.99</b></p>                | <p>HAJO REUM GOMPYO Wheat Flour<br/>하조령 곰보우동 밀가루</p> <p><b>\$3.99</b></p>                         | <p>BANH MANTTEOK Tookbokki&amp; Dumpling Set<br/>반합미백 하조령 떡볶이 &amp; 컵 만두 세트</p> <p><b>\$7.99</b></p> |
| <p>HAJO REUM Pooled Roasted Chestnuts<br/>하조령 갈집 한 맛밤</p> <p><b>\$0.99</b></p>      | <p>HAJO REUM Dumpling<br/>하조령 만두</p> <p><b>\$4.99</b></p>                                                    | <p>LAPOTHICELL Tone up &amp; Cover Cushion<br/>라포티셀 라포타셀 톤업 &amp; 커버 쿠션</p> <p><b>\$18.99</b></p> | <p>HELLO Thermos Food Jar<br/>헬로 보온 식품도시락</p> <p><b>\$12.99</b></p>                                  |
| <p>CALBEE Fruity Fruit &amp; Granola<br/>칼비 프루티 그라나</p> <p><b>\$6.99</b></p>        | <p>HAJO REUM Melon Flavored Milk Drink<br/>하조령 멜론맛 우유</p> <p><b>\$1.99</b></p>                               | <p>CHANGSHIN Laundry Soap<br/>창신 세탁 비누/샴푸 팩</p> <p><b>\$1.89</b></p>                              | <p>CHANGSHIN Laundry Soap<br/>창신 세탁 비누/샴푸 팩</p> <p><b>\$2.49</b></p>                                 |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 Mart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H Mart USA, Inc. © 2019 H Mart USA, Inc.



# 장자연리스트 규명 불가, 수사외압 · 부실 확인

방사장 특정 못해, 증거확보 대비 2024년까지 기록 보전  
檢과거사위, 성폭행의혹 수사권고 안해...김종승 위증혐의만 권고

(서울=뉴스1) 구교운, 손인해 기자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가 이뤄졌고, 조선일보의 수사무마 외압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성폭행 의혹에 관해 재수사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장자연 문건'과 관련해선 피해사례를 서울형으로 기재한 내용 외에 '명단'이 기재된 '장자연 리스트'의 경우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관해 이와 같이 심의,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자연 문건'은 장씨가 속해 있던 기획사 대표 김종승씨의 직원 유모씨가 별도 기획사를 설립해 김씨 소속사 배우들을 영입했는데, 김씨의 소송 제기 예상되자 김씨를 압박하는 데 쓸 용도로 작성된 문서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문건'에서 피해 내용으로 언급된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행위 △드라마 '꽃보다 남자' 출연 위한 비용을 장씨가 부담한 사실 △소속사 대표 김씨의 태국골프 접대 거절 후 장씨 차량 매각 등 문건 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그 내용 모두가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

라고 판단했다.

'장자연 리스트'에 관해선 "윤지오씨를 제외하고 문건을 본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만 적힌 '리스트'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문건을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09년 3월 장씨가 숨진 뒤 이뤄졌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은 인정됐다.

과거사위는 김씨의 술접대 강요 의혹과 관련해 "2008년 9월부터 김씨의 술접대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음에도 수사검사는 '장자연 문건' 내용이 모호하고 윤씨가 직접적 폭행,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며 "수사미진에 해당하고, 수사검사가 강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의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수사미진"이라고 지적했다.

'장자연 문건' 중 '2008년 9월 조선일보 방사장이란 사람과 룬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 사장님이 잡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에 관한 수사 역시 부실했다고 인정됐다.

당시 수사에서 검사는 '조선일보 방사장'이 대표이사 방모씨를 가리키는

지 확인하기 위해 방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한달치만 확인했고, 비서실 통화내역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07년 10월 또다른 방모씨가 장씨와 중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지만 또다른 방씨에 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방사장'과 대표이사 방씨가 무관하다는 점에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며 "문건 속 '방사장'이 누구인지, 장씨가 호소한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사단 역시 장씨가 언급한 '방사장'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특정하지는 못했다.

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에는 사건을 대처하기 위한 대책반이 꾸려졌고, 당시 이모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만났음을 확인했다.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은 조사단 조사에서 "이 사회부장이 찾아와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번 불자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조선일보'라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조 전 청장을 협박한 행위'로 특수협박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2016년 4월 22



문준영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일자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에서 주요 증거들이 확보되지 않았고, 보존도 잘 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씨의 행적과 만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 다이어리, 명함 등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돼 초동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통화내역 원본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장씨 수첩과 다이어리를 돌려주면서 압수물 사본을 남겨두도록 지휘하지 않고,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관한 수사결과도 남겨두지 않는 등 수사검사가 객관적 자료를 기록에 보조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언급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이며, 의도적 증거은폐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진술한 장씨 성폭행 피해 의혹에 관해선 "윤씨의 진

술은 이중적 추정에 근거한 진술이란 점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다"며 "윤씨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이 이뤄졌는지, 그 가해자, 범행일시, 장소, 방법을 알 수 없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장씨 성폭행 피해 의혹에 관한 재수사는 권고하지 않았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 전 강간치상 범행에 대한 구체적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해 성폭행 의혹과 관련, 최대한 상정 가능한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4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 기록과 조사단 조사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사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또 김씨 위증에 관해선 "김씨가 이중결 의원의 명예훼손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 중 허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김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라"고 권고했다.

kukoo@news1.kr

## 키맨 윤중천, 두번 영장 끝에 구속...김학의 수사도 탄력

법원'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윤씨 강간치상 범죄 3건...공소시효 15년

(서울=뉴스1) 구교운, 박승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구속)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간치상 등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22일 '키맨' 윤중천씨(58)를 구속했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접대 의혹을 밝힐 핵심인물인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단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0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20일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

수재, 무고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 신병확보 시도다.

수사단은 이번 구속영장에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하고 사기 혐의 관련 범죄사실도 더했다.

윤씨의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3건이다. 그중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내용은 2007년 11월 13일 윤씨가 김 전 차관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가 이모씨를 강간하고 김 전 차관이 이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강간치상 혐의는 이씨가 2008년 3월부터 2014년 사이 정동장에(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것)을 주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 불면증 치료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병원 진료기록이 근거가 됐다.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씨는 윤씨뿐 아니라 김 전 차관에게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씨가 구속됨에 따라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씨가 김 전 차관과의 성

관계를 이씨에게 강요한 사실을 김 전 차관이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수사단의 과제다.

윤씨는 이외에 2006년 겨울 이씨가 자신이 접대를 지시한 피부와 의사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씨를 겁박해 흥기로 협박한 뒤 강간하고, 2007년 여름 이씨가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다음날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폭행·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2007년 자신의 내연녀 김모씨에게 이씨를 데려가 성행위를 강제하고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친구들과 합동으로 이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검찰은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지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도 적용했다.

사기혐의 범죄사실 2건도 새로 추가됐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토목공사를 주겠다'며 벤츠와 아우디 자동차리스비용 99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권씨에게 개인 활동비와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으로 2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사기 등 혐의로 윤씨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

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개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parksj@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 OUR AGENTS



**나 원 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미니 유**

617.803.1266  
miniee@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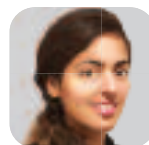
**이 준 군**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 민 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 현 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 은 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 OUR LISTINGS



###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00,000**



### Fish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40,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 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매상높은" 세탁소 비즈니스 포함

Asking **\$990,000**



### 식당 매매

Hibachi 테이블 & 스시바  
풀 리퀴 라이선스, 2500 스퀘어피트  
보스톤 북쪽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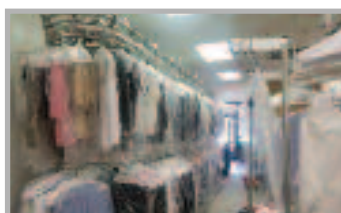
Asking **\$7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교통량 많은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  
안정된 고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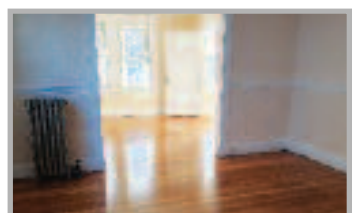
Asking **\$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Tailoring 수요 높음  
대형 미국 체인점 주변  
안정된 인근 여러 타운의 고객 확보

Asking **\$50,000**



### 주거렌트

에버렛에 위치, 1125 Sq. Ft.  
2 Beds & 1 Bath, 새로레노베이션된아파트  
주차가능, 보스톤에인접, 단기렌트가능

Asking **\$2000/월**



### 리테일 가게 매매

대형 아시아 슈퍼마켓내에 입점  
연중무휴로 바쁜 가게, 안정된 고정 매출  
업종 변경 가능

Asking **가격 문의 바람**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안정된 고객과 매상

Asking **\$50,000**



###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독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 세탁소매매

보스톤북쪽에 위치, Full plant 세탁소  
안정된고객과매상

Asking **\$165,000**



###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 삼바 의혹 관련 이재용 통화 복원, 맞춤 회계보고서 분석도

## 바이오사업과 현안 직접 보고받고 지시한 정황 담겨 회계보고서엔 실제 없는 바이오사업에 3조 가치 부여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가 증거인멸한 폴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육성 통화 파일을 복원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 삼성에피스가 삭제했던 '부회장 통화결과' 폴더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임원과 통화한 음성 파일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분석 중이다.

검찰이 복원한 다수 파일 중 삼성에피스 임원과의 통화내용에는 바이오 사업 및 해당 회사 현안에 대해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지시한 정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를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삼성에피스 등을 직접 관리해온 증거로 보고, 조직적 증거인멸에도 관

여했는지 살피는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고발하자 삼성에피스 재경팀 소속 직원들이 '부회장 통화결과'를 포함해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등에 저장된 파일 2100여개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삭제된 파일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계획 공표 방안' '상장연기에 따른 대응방안' '바이오젠 부회장 통화결과' '상장 및 지분구조 관련' '바이오시밀러 개발사 상장현황' 등이 포함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당수의 파일 복원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실행한 혐의를 받는 삼성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는 지난 20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의 지시를 받고, 직원들의 업무용 이메일과 휴대전화에서 'JY' '합병' '바이오젠' '콜옵션'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뒷선으로 지목되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을 상대로 전날(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 뒷선을 추궁,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직접 자회사 사업까지 관리해온 증거가 나온데다,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증거인멸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 추후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1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탄우홀 미팅에 참석 전 대기실 총수들과 티타임을 갖기 위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들어서고 있다

장을 먼저 소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과 삼정케이피엠지가 지난 2015년 5월 작성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용 검토보고서' 보고서에도 주목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제일모직과 관련해 실체가 없는 '바이오사업부(신수중사업)' 영업가치를 3조원가량으로 산정해,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겨있다.

에버랜드가 보유한 동·식물을 이용해 바이오 소재와 헬스케어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당시 구상 수준이었던 이 사업은 합병 시점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계법인이 삼성의 요구에 따라 맞춤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 의심하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maintain@news1.kr

## 삼바사장 포함 삼성 고위임원 3명 영장청구, 증거인멸 교사혐의

### 김태한 대표, 분식회계 자료 삭제 의혹에 "실무진이 한 것"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를 비롯해 고위임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측이 분식회계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들을 삭제한 정황이 파악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뒷선들에 대한 소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대표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업지원TF는 과거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사흘 연속 김 대표를 소환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한 2015년을 포함해 2011년부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분식회계 관련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관여 의혹에 대해 "실무자들이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휘·실행한 혐의로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

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를 구속했다. 백 상무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뒷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이 이들을 지휘한 뒷선으로 전해졌다. 두 부사장은 지난 19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 8일 구속된 삼성바이오 보안서버 관리직원 안모씨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서버와 노트북을 훔 았다가 다시 꺼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안씨는 백 상무 등 사업지원 TF 측 요구에 따라 자신이 개인 판단으로 서버를 숨겼으며 거짓 증언을 했다고 검찰에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역시 비슷한 시기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수사단서가 될 만한 자료나 'JY' '합병' 등 단어가 포함된 문건을 선별해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이후 처음으로 지난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양 상무는 지난해 7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고발이 예상되자 재경팀 소속 직원들에게 '부회장 통화결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안에 있는 파일 등 2100여개 파일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보고 있다.

parksj@news1.kr

## 노무현 10주기 추도식 참석한 부시 "미, 통일한국의 꿈 지지"

### 노무현, 강력한 목소리 대상 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야

(서울·김해=뉴스1) 박기호, 정연주, 이형진 기자 =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3일 "미국은 모든 한국인이 평화롭게 거주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며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모두를 위한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한국의 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 추도사를 통해 "원앙숙 여사와의 환담 자리에서 가족과 국가를 진심으로 사랑한 분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방문했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최근 그랬던 노무현 전 대통령 초상화를 (권 여사에게) 전달해드렸다"며 "노 전 대통령을 그릴 때 인권에 헌신하고 친절하고 따뜻했던 노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신 분을 (그림으로) 그렸다"면서 "한국의 인권에 대한 그분의 비전이 국경을 넘어 북에까지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노 전 대통령 이) 목소리를 내는 대상은 미국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여느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노 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목소리를 냈다"며 "저희는 의견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차이는 물론 갖고 있었지만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과 공유된 가치보다 우선하는 차이는 아니었고 저희는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전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해준 중요한 동맹국으로 미국의 이라크 자유 수호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기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기념비적인 새로운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체결했고 이는 양국이 세계의 최대 무역교역국으로 의지하고 있고 양국의 경제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며 "양국의 교류 촉진을 위해 대한민국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도 했으며 한국을 G20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그분은 훌륭한 성과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가치, 가족, 국가, 그리고 공동체였다"고 회고했다.

goodday@news1.kr



# 피부 시간을 거꾸로?

프라뷰/플라스킨은 플라즈마를 발생하여  
이온을 만들고 플라즈마 이온이  
피부모공보다 아주 미세한 크기로

방출되어 피부 조직 구조에 에너지를  
전달하여 피부노화 방지 및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 프라뷰/플라스킨만의 효과!

- ✓ 피부노화 방지
- ✓ 피부탄력 증진에 도움
- ✓ 탱탱한 피부로의 변화
- ✓ 피부 보습 효과에 도움
- ✓ 미세먼지 등 각종 자극에 의한 트러블 완화에 도움



이상민도 반한 국민 피부관리기 **프라뷰/플라스킨!**



플라스킨 외 1종 사용 후 4주에 걸쳐  
피부 인체적용시험 평가 결과,  
탄력, 피부결, 피부톤 등 총 5가지 부문에서  
개선됨을 확인. 안티에이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판단된다.  
- 한국피부임상과학 연구소



## PLABEAU / PLASKIN

프라뷰/플라스킨과 함께 피부 시간을 거꾸로 돌려주세요!  
(FCC인증/ FDA승인 완료)

아토피와 여드름 치료에도 Unbelievable!  
(아토피 안심마크) 대한아토피 협회 인증 획득

DAONIXUSA

플라즈마의 기적 !

이제 보스톤 CoCo Cosmetics 에서 만나 보세요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H 마트 안)



##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 예술에서 만난 심리학

인상파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는 전 생애를 우울증과 함께 살아간 화가다. 특히 그의 작품 <귀를 봉대로 감은 자화상>은 우울증이 극에 다다른 고흐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주 휴람에서는 휴람 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강렬한 색채로 내적 갈등을 드러낸 고흐의 삶과 우울증에 대해 살펴본다.



write 박홍순(인문학 작가)

글쓰기와 강연을 통해 인문학을 넓히는 활동을 해왔다. 저서로 <미술관에서 만난 심리학>,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심리학수업>, <미술관 옆 인문학> 등이 있다.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49-1766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고흐 &lt;귀를 봉대로 감은 자화상&gt;을 통해 본 우울증

우울증을 짊어지고 산 고흐

<귀를 봉대로 감은 자화상>은 고흐의 우울증이 극심한 발작 상태에 이르러 자기 귀를 자른 후의 모습이다. 귀를 봉대로 감은 모습의 자화상 두 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자화상 자체에 정상적이지 않은 기운이 감돈다. 언뜻 차분한 표정으로 파이프를 물고 있어서 평온한 상태로 보인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귀를 자른 사람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침착한 표정을 짓는 모습 자체가 비정상이다. 강렬한 색 대비도 심상치 않다. 붉은 색과 주황색으로 배경을 양분하고 녹색 외투까지 더해 생경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지만 무의식에서 격렬하게 꿈틀대는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듯 싶다.

귀를 자른 사건도 충격적이다. 1888년 말부터 고흐는 고갱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고갱과의 동거는 순탄하지 않았다. 고갱이 고흐의 모습을 그린 후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자, 고흐가 격하게 화를 냈다. 화해를 위해 술집에 갔지만 다시 말다툼이 일어났고 고갱에게 술잔을 던졌다. 고갱은 곧 떠나겠다는 통보를 했고, 얼마 후 고흐에 의해 다시 한번 위협을 느껴야 했다. 고갱은 이날의 일을 '발자국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칼을 든 고흐가 나에게 담벼들려고 했다. 내가 짜려보자 그는 멈추고 집으로 달아났다.'라고 기록한 바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흐는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왼쪽 귀를 거의 완전하게 도려낸 후 늦은 밤에 창녀 라센을 찾아가 신문에 돌돌 말아 가져온 귀를 건넸다. 그녀는 바로 실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고흐는 곧 병원에 수용되었다.

그의 행동이 우연한 발작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우울증에 시달렸다. 고갱과의 공동 작업을 마지막 활로로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의 진행은 예상한 참 빛나가서 거듭된 갈등에 괴로워했고, 우울증은 오히려 더 깊어갔다. 급기야 고갱이 이별을 통보하자 우울증은 견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고갱에게 칼을 휘두르고 자신의 귀를 자르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정신의학에서 우울증은 저조한 기분 상태를 말

한다. 특히 외부 자극과 무관하게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는 '정신병적 우울증'이 문제다. 일상적인 관심과 흥미가 상실되고 식욕이 감퇴하며, 열등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힌다. 사고와 행동의 장애를 동반하며 사회 대처능력이나 집중력 감소 현상을 초래한다.

가장 과묵적인 결말은 자살이다. 고흐도 그 사건 이후 바로 다음 해에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우울증은 왜 생기는가?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로이트 중심의 정신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울증 유발 요인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꼽는다. 남자 아이가 아버지를 증오하고 어머니에 대해 품는 무의식적인 애착을 말한다. 보통은 이 콤플렉스를 자연스럽게 극복하며 정상적인 성애를 갖게 되지만, 극복에 실패한 사람은 우울증을 비롯한 신경증을 앓는다. 프로이트는 성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분석했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는 성적인 면에 국한하지 않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와의 동일시 현상 전반으로 보다 폭넓게 설명한다.

고흐의 <성경과 삶의 기쁨>은 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경향을 분석하는 그림으로 자주 거론된다.

큰 판형으로 제작된 '성경'과 '삶의 기쁨'이 있다. 그런데 그림에 등장하는 두 권의 책은 단순한 정물 소재를 넘어서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고흐는 평생 아버지와 갈등을 빚었다. 원래 그는 목사인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20대 청년기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음으로써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아버지와의 동일시가 나타났다. 미술은 취미로 그림을 그리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고흐에게 그림은 어머니의 관심을 받고 싶은 욕망이기도 했다. 종교에 대한 회의와 함께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길을 예술에서 찾으면서 아버지와 갈등이 깊어간다.

10년 가까이 아버지를 뛰어넘어 그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면, 마음 한편에는 미

술에 대한 욕구, 즉 어머니로의 회귀가 계속 남아 있었다. 편지에서는 이때의 심정을 '나는 아버지의 구체적인 설교보다 밀레의 저 막연해 보이는 그림에서 더 많은 것을 본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즈음 고흐는 다시 문학 작품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특히 자연주의적 경향과 민중에 대한 애정을 담아 작품 활동을 하던 졸라에게 매료된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신론자인 졸라를 미워했기에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림에서 큰 판형의 '성경'은 아버지를 의미한다. 비록 그림 전체에서 양적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책도 펼쳐져 있지만 주인공 같지가 않다. 오히려 그 앞에 빛을 받으며 비스듬하게 툭 던져져 있는 졸라의 작은 책에서 더 생동감이 느껴진다. 또한 몇 년 후에 그린 작품에도 졸라의 책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확실하다. 아버지에 대한 적의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죽기 직전까지 아버지가 경멸해 마지않던 졸라의 소설을 성경 옆에 두었다는 것만으로도 예술을 향한 지향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연관된 관점으로 해석하면, 고흐는 종교적 도덕률로 대표되는 아버지와 동일시에 실패하고, 미술로 대표되는 어머니를 향한 집착으로 후퇴함으로써 우울증 경향이 심해진 것이 된다. 고흐의 편지나 그림에서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의미의 욕망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목회자의 길에 몰입하던 청년기와 화가로 성공을 꿈꾸던 이후의 삶이 절벽에 가까운 단절 경험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두 길이 부모와 연결된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고흐는 한 점의 미술품도 팔지 못할 정도로 화가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고갱을 통한 마지막 희망도 좌절되는 상황에서 우울증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자기 귀를 자르는 발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개연성은 충분하다. 고흐의 작품과 삶을 보며 성장과정에서 억압된 무의식에 대한 정신적인 분석, 억눌린 소망의 해소를 통한 정신적인 치유 과정이 우울증 치료에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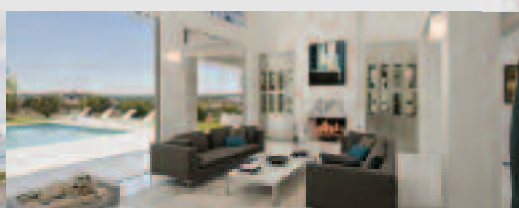


#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은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Jay Lee**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 FEATURED LISTINGS (문의: 애나 정 617.780.1675)



**East Cambridge New condominium**에서 편리하고 멋진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55세대 Residential 7층 건물.  
2bed만 Available.  
입주와 투자용으로 최고의 위치  
Lechmere 0.3miles  
MGH 1.5 miles  
Harvard University 2miles

**ASKING \$899k - 1199k**



**Woburn's Newest Luxury farmhouse Condominium (Townhouse)**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총112세대,  
1층 9 foot ceiling과 open concept floor plan.  
2bed, 2bath이상

**ASKING \$600,000-\$800,000**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 금주의 LISTINGS



보스톤 북쪽 세탁소 매매  
30년 이상된 대형 물안에 위치.  
고정 고객과 안정된 매출.  
하이드로카본. Full plant.

**ASKING \$19,9500**



보스톤 남쪽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고정손님 확보

**ASKING \$99,000**



단독 건물 매매. 세탁소 포함  
오너 파이낸싱 가능  
보스톤 남쪽

**ASKING \$480,000**



보스톤 남쪽, 세탁소 매매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

**ASKING \$160,000**



Belmont 성황중인 Nail salon  
주인 리타이어, 6 manicure,  
6 pedicure, unlimited potential

**ASKING \$150,000**



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

**ASKING \$375,000**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애나 정**  
617.780.1675



**오성빈**  
978.505.3736

###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 LISTINGS



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

**ASKING \$130,000**



보스톤 서쪽 네일샵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

**ASKING \$170,000**



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

**ASKING \$200,000**

**Jay B. Lee** Direct: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TEL.617.467.5218 FAX.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준기 원장 (보스턴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 미국 명문 대학 입학 결과 분석 (Class of 2023) (2)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

유펜이 예상한 신입생수는 2,400명 정도이다. 올해 지원한 학생들은 총 44,960명으로 이중 3,345명이 입학 허가되었다. 유펜은 코넬과 더불어 규모가 크고 학생들 지원자수와 뽑는 학생들도 많아 최대한 서류작업을 간편화 하여 입학을 평가했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에세이, 추천서, 인터뷰 등 모든 분야에서 학생들 평가를 가지고 입학을 결정하는 요소로 바뀌면서 입학이 많이 까다로워진 학교 중 하나이다.

입학 허가된 학생들의 평균 SAT 성적은 1460-1550 있고 ACT는 33-35점 사이이다. 미국 50개주에서 입학생을 배출하고 가장 많은 입학생들을 배출한 주는 펜실베이니아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플로리다주, 그리고 텍사스주 있다. 외국 학생들은 총 14%가 약 100개 국가에서 입학 허가되었다. 여학생 53%와 남학생 47%, 유색인종 51%, 백인 49%, First Generation 15%, Legacy 13% 등으로 다양한 출신과 균형을 유지 하며 학생들을 선택했다.

유펜은 규모가 크지만 학생들이 밝고, 전공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리서치 경험, 사회에 공헌도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선발 하는 대학이다. 다양한 코스를 갖게 수강하여 자신이 흥미 있는 과목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면 입학에 도움이 되고 가능한 조기 지원을 해야 훨씬 입학에 유리하다. 유펜 역시 재정보조 확대로 다양한 지역과 저소득 층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리쿠르트 하고 있다. 갈수록 부자 대학들이 더 우수하고 유능한 학생들을 많이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갈수 받게 없는 상황이 되었다.

(브라운 대학교: Brown University)

지난해 브라운은 총 35,438명이 지원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보다 9%정도 지원자수가 증가한 38,674명이 지원하여 정시 결과 입학률은 브라운 역사상 가장 낮은 4.8%로 가장 입학 결정이 힘든 해였다. 물론 전체 합격률은 6.6%로 다소 높아 보이거나 실제로 조기 지원이 아니면 정시 지원에서 합격은 그야말로 입학 전쟁이다.

브라운 입학처장인 로건 포웰(Logan Powell)에 따르면 “올해는 의도적으로 정시에서 낮은 합격자수를 주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조기에서 769명의 많은 합격자수와 학생들이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융자(Loan)를 재정보조로 대체하여 합격자들중 많은 학생들이 최종 등록 할거라는 것을 예상 했기 때문이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합격생들의 구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재정 보조 신청자 65% 지난해보다 1% 정도 증가 했고, 다양한 인종 49%, 백인 51%, 가족중 최초의 대학생(First Generation) 14%로 지난해보다 1%가 증가했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First Generation 학생들 합격자수를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보다 폭넓은 브라운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중이 있다.

50개주에서 모두 합격생들을 배출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뉴저지, 텍사스에서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였다. 외국 학생들 입장에서 총 80개 국가에서 합격생들이 나왔고 이중 중국, 캐나다, 인도, 한국, 그리고 영국 순서로 많은 합격생들이 나왔다. 지난해 총 11% 외국 학생들이 합격했는데 올해는 13%로 약 2%가 지난해 비해 증가했다. 전공 흥미 측면에서 과학 관련 전공자들은 33%로 지난해 비해 2%증가했고 인문학 전공은 18%였다. 브라운과 RISD 복수 전공 합격자는 18명, 7년 의대 PLME(Program in Liberal Medical Education) 과정에 94명이 합격하였다.

결론적으로 브라운은 조기 지원자중 769명, 정시에 1,013명 으로 총 1,782명의 학생이 총 38,674명 중에서 합격하였다. 재정 보조 확대, 외국 학생과 First generation 입학률 확대, 조기 지원 합격자 증가 등의 이유로 정시 지원자들의 합격이 매우 힘든 해였고 많은 우수한 학생들도 입학이 많이 거절된 해였다.

(다트머스 대학교: Dartmouth College)

다트머스는 올해 총 23,650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여 1,876명의 학생들이 합격하여 7.93% 입학률을 보였다. 이중 조기지원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2,474명이 지원하여 574명이 합격하여 23.2%의 합격률을 보였고, 정시 지원은 총 21,176명중 1,302명이 합격하여 6.15%의 합격률을 보였다. 다트머스 입학 처장에 의하면 “올해 학생들이 많은 분야 흥미가 있고, 지적 호기심도 있으며, 창의성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 하였으며, 다트머스 생활정보 학교 공동체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졸업후에도 학교와 사회에 공헌 할수 있는 인재들을 뽑았다고 한다.”

입학 허가된 학생들조차 95%는 학교 성적이 상위 10%안에 있고 이들부터 약 500명 이상이 학교성적 수석 또는 차석인 학생들이다. SAT 1 과 ACT 평균 점수는 각각 1501점과 33점이며 미국 50개주와 세계 69개 국가에서 입학생들의 배출 하였다. 합격생들 중에서 미국내에서는 캘리포니

아 출신, 남부와 서부 지역 출신들이 40%이고 외국 학생들은 12%이고 특히 영국, 중국, 캐나다, 브라질 출신의 학생들이 국제 학생들은 많이 입학 허가 되었다.

유색인종은 50%이고, 도시 출신 학생들은 13%, First Generation은 16%, 레가시(Legacy)는 9%였다. 다트머스 역시 재정 보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체 입학생들 중 약 50%가 수혜를 받았고 이중 약 20%는 저소득층 자녀가 입학 허가 되었다. 재정 보조금은 평균 \$53,000정도이고 부모님 연소득이 \$100,000 미만은 재정 보조 보장

이 되었다.

다트머스는 학교가 산속에 위치해 있어 도전적이면서 자기 조절이 가능하며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고 극복 할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학교이다. 물론 최근들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입학 조건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학교를 한번만 방문하지 말고 가능한 저학년때 한번 그리고 11학년때 한번 방문하여 학교가 원하는 것들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 긴급 주요 전화

|                  |              |
|------------------|--------------|
| 가정폭력상담소(Ex. 33)  | 617-338-2352 |
| 건인               | 800-632-8075 |
| 고등교육위원회          | 617-727-7785 |
| 고등교육정보센터         | 800-442-1171 |
| 공중위생국            | 617-624-6000 |
| 구세군              | 617-536-7469 |
| 국세청              | 800-829-1040 |
| 날씨문의             | 617-976-6200 |
| 로건국제공항           | 800-235-6426 |
| 미아찾기             | 888-477-6721 |
| 백베이역             | 617-345-7958 |
| 보스톤공립학교          | 617-635-9000 |
| 보스톤수도            | 617-989-7000 |
| 보스톤시청            | 617-635-4500 |
| 보스톤총영사관          | 617-641-2830 |
| 사우스익             | 617-345-7958 |
| 사회보장국            | 800-772-1213 |
| 성폭행              | 781-237-9110 |
| 성폭행              | 617-492-8300 |
| 시간문의             | 617-637-123  |
| 아동보호             | 617-748-2000 |
| 아동학대             | 800-792-5200 |
| 알코올/마약           | 617-445-1500 |
| 여성학대             | 617-248-0922 |
| 온전연허             | 617-351-4500 |
| 웰페어              | 617-348-8500 |
| 자원봉사             | 800-522-8086 |
| 적신자              | 800-564-1234 |
| 전화신청 (Verizon)   | 800-941-9900 |
| 전화고장신고 (Verizon) | 617-555-1515 |
| 택시               | 617-343-4475 |
| AAA              | 800-222-4357 |
| FBI              | 617-741-5533 |
| MBTA             | 800-392-6100 |
| NSTAR가스          | 800-572-9300 |
| NSTAR 전기         | 800-592-2000 |
| RCN케이블TV/전화      | 800-746-4726 |

### 한인회

|           |              |
|-----------|--------------|
| 뉴잉글랜드 한인회 | 781-933-8822 |
| 뉴햄프셔 한인회  | 603-767-1356 |
| 로어일랜드 한인회 | 401-368-0467 |
| 메인한인회     | 207-756-0092 |
| 버몬트 한인회   | 802-734-2521 |

### 주요 단체

|               |              |
|---------------|--------------|
| 국제한국기독교연합회    | 978-407-7554 |
| 국재한국기독교연합회(나) | 603-889-8201 |
| 뉴잉글랜드골프협회     | 617-438-9763 |
| 뉴잉글랜드공공전우회    | 978-902-8305 |
| NE교역자협의회      | 978-394-3060 |
| 뉴잉글랜드문인협회     | 978-688-3137 |
| 뉴잉글랜드산악회      | 774-270-1948 |
| 뉴잉글랜드시민협회     | 508-962-2689 |
|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 978-394-3060 |
|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 617-833-1360 |
|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 603-894-5425 |
|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 413-535-0916 |
| 보스톤 대한체육회     | 781-326-9009 |
| 보스톤산악회        | 978-569-3256 |
| 보스톤한미노인회      | 978-994-5490 |
| 재미과학기술자협회     | 857-998-7043 |
| 재향민인회         | 781-854-8880 |
| 세탁인협회         | 508-826-5270 |
| 이북도도민연합회      | 978-514-3399 |
| 한인학교NE협회      | 781-424-5269 |
| 대한인경제인협회      | 401-481-4900 |
| 한국임업이동회(메인)   | 207-878-5652 |
| 6.25참전유공자회    | 978-725-9597 |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 781-367-5993 |

### 동창 향우 동호회

|             |              |
|-------------|--------------|
| 건국대학교동창회    | 401-738-8735 |
| 경기고등학교동창회   | 508-995-7242 |
| 경기여고동창회     | 781-861-0437 |
| 경복고동창회      | 617-921-8799 |
| 고려대학교 교우회   | 617-780-2999 |
| 뉴잉글랜드 산악회   | 774-270-1948 |
|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 978-474-4780 |
| 보스톤 산악회     | 978-569-3256 |
| 보스톤한인사회관    | 617-789-4964 |
| 산사랑         | 774-270-1948 |
| 서강대동문회      | 617-599-9869 |
| 서울고 동문회     | 617-792-2635 |
| 서울대학교동창회    | 978-821-9434 |
| 서울대학교동창회산우회 | 617-780-7205 |
| 성균관대동창회     | 802-734-2521 |
|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 508-541-6969 |
| 이화여고동창회     | 617-277-0730 |
| 이화여대동창회     | 978-390-1552 |
| 중앙대학교동창회    | 603-622-8883 |
| 강원도민회       | 617-875-1801 |
| 충청향우회       | 678-717-8800 |
| 한양대동문회      | 781-548-9052 |

### 언론

|                 |              |
|-----------------|--------------|
| 보스톤코리아          | 617-254-4654 |
| 한인회보            | 781-933-8822 |
| 한국일보 (뉴욕)       | 718-482-1111 |
| Grapevine Times | 781-548-9945 |

### 종교

|              |              |
|--------------|--------------|
| 기독교          |              |
| 구세군 물든교회     | 617-792-8780 |
|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 603-430-2929 |
|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 617-913-3074 |
| 나사렛사람교회      | 781-439-1840 |
| 낮아짐교회        | 781-832-2014 |
| 뉴잉글랜드감리교회    | 617-969-0507 |
| 뉴튼 아름다운 교회   | 617-869-8159 |
| 갈보리교회        | 413-789-9888 |

|             |              |
|-------------|--------------|
| 구세군물든교회     | 617-792-8780 |
|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 203-459-8517 |
| 그리니치한인교회    | 203-861-1134 |
|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 603-430-2929 |
| 나사렛사람교회     | 781-439-1840 |
| 내수아한마음교회    | 603-888-8040 |
| 뉴잉글랜드감리교회   | 617-969-0507 |
| 뉴잉글랜드한미교회   | 413-567-9142 |
| 뉴튼 아름다운 교회  | 617-869-8159 |
| 뉴햄프셔감리교회    | 617-990-7619 |
| 뉴햄프셔장로교회    | 603-437-5134 |
| 뉴햄프셔한인교회    | 603-264-6799 |
| 라이코스교회      | 978-387-1115 |
| 라이스한인침례교회   | 508-926-8236 |
| 로어일랜드상동교회   | 401-353-0983 |
| 로어일랜드제일교회   | 401-944-0520 |
| 리생명의길장로교회   | 401-821-2311 |
| 메리맥 교회      | 978-806-1363 |
| 목양교회        | 617-223-1690 |
| 무지개교회       | 207-774-1617 |
| 밀알한인교회      | 978-244-0691 |
| 렉싱턴 풍성교회    | 617-953-0856 |
| 버클랜드 침례교회   | 617-864-5948 |
| 보스톤 국제교회    | 617-459-6479 |
| 보스톤 감리교회    | 781-393-0004 |
| 보스톤 사랑의교회   | 617-285-8070 |
|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 978-844-2404 |
|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 781-715-0571 |
| 보스톤 새로운교회   | 617-497-6765 |
| 보스톤 새생명교회   | 978-777-1800 |
| 보스톤 생명의 교회  | 978-578-6987 |
| 보스톤서부장로교회   | 781-894-3958 |
| 보스톤 성결교회    | 781-275-8233 |
| 보스톤 한울교회    | 781-396-1004 |
| 보스톤 소망교회    | 781-686-5526 |
| 보스톤시온성교회    | 781-275-1763 |
| 보스톤안식일교회    | 781-279-3270 |
| 보스톤 온누리교회   | 781-933-7044 |
| 보스톤웨슬리감리교회  | 781-393-0004 |
| 보스톤 장로교회    | 508-435-4579 |
| 보스톤 제일교회    | 617-458-2733 |
| 보스톤 주님의교회   | 617-966-9608 |
| 보스톤 중앙교회    | 617-230-5004 |
| 보스톤필그림교회    | 857-636-9985 |
| 보스톤 한인교회    | 617-739-2663 |
| 보스톤 한우리교회   | 978-454-0454 |
| 보스톤한인연합교회   | 617-923-9581 |
| 북부보스톤감리교회   | 978-470-0621 |
| 비전교회        | 617-308-2391 |
| 새빛교회        | 781-652-0001 |
| 새여수살렘교회     | 774-249-0022 |
| 선한목자장로교회    | 904-400-9386 |
| 성요한 교회      | 781-861-7799 |
| 순복음 보스톤교회   | 781-613-5372 |
|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 413-789-4522 |
| 스프링필드제일교회   | 413-781-2477 |
| 사온감리교회      | 401-739-8439 |
| 안디옥 교회      | 978-534-3394 |
| 열방교회        | 617-620-3352 |
| 에이더 뱌엘교회    | 978-274-2369 |
| 엠헤스트 한인장로교회 | 413-549-6495 |
| 엘리스트 시온교회   | 413-549-9200 |
| 엘스톤한인교회     | 617-642-7403 |
| 우스터 교회      | 508-799-4488 |
| 우스터장로교회     | 781-354-1843 |
| 웨스트프린티어 교회  | 918-876-2815 |
| 임마누엘 연합교회   | 978-394-3060 |
| 자연교회        | 603-437-6151 |
| 좋은땅교회       | 978-930-6613 |
| 지구촌방주교회     | 617-838-6434 |
| 케임브리지한인교회   | 617-491-1474 |
|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 781-861-3877 |
| 콘시영성장로교회    | 617-770-2755 |
| 하바드 한인선교회   | 617-441-5211 |

|            |              |
|------------|--------------|
| 불교         |              |
| 문수사        | 781-224-0670 |
| 서운사        | 508-755-0212 |
| 심광사        | 617-787-1506 |
| 보스톤 정토 법회  | 617-977-4227 |
| 원불교        |              |
| 원불교보스톤성당   | 617-666-1121 |
| 천주교        |              |
|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 617-558-2711 |
|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 | 401-499-8258 |

|       |              |
|-------|--------------|
| 간판    |              |
| 초이스간판 | 617-470-1083 |

### 건강식품

|                |              |
|----------------|--------------|
| 보스톤 평판정 브랜드스토어 | 781-238-0303 |
|----------------|--------------|

### 건축

|                  |              |
|------------------|--------------|
| 글로벌건축            | 617-645-6146 |
| 김원대 건축사          | 617-620-8242 |
| 미남건축             | 508-650-8844 |
| 선아건축             | 508-230-5878 |
| 솔로몬 DRYWALL      | 978-761-0623 |
| 신중축 루팡사이드 청문     | 617-999-9616 |
| 아놀드 건축           | 617-833-1360 |
| 파인향건축            | 617-688-6833 |
| 한샘(南)            | 781-487-0101 |
| ECO Construction | 781-608-2971 |
| E/Y 건축           | 617-590-3472 |
| J.C건축            | 781-738-7871 |
| J&D 인테리어         | 617-645-6661 |
| LEE'S건축          | 617-538-0558 |

### 골프 개인

|           |              |
|-----------|--------------|
| 골프 개인 PGA | 617-458-2733 |
| 골프스쿨      | 617-775-5527 |
| 남궁연골프교실   | 978-474-4780 |
| ABC골프     | 603-401-7990 |

|           |              |
|-----------|--------------|
| 최현주 골프 레슨 | 339-223-4700 |
|-----------|--------------|

### 공인 회계사

|          |              |
|----------|--------------|
| 김양일 회계사  | 617-901-0707 |
| 김창근 세무사  | 781-935-4620 |
| 노성일공인회계사 | 781-863-2232 |
| 이현우 회계사  | 781-944-2442 |
| 이명원 회계사  | 617-455-8073 |
| 정진수회계사   | 508-584-5860 |
| 한미선회계사   | 617-792-2355 |
| 한성애회계사   | 617-283-7151 |

### 꽃

|       |              |
|-------|--------------|
| 미스티화원 | 617-666-3116 |
| 데코플라워 | 617-875-0648 |
| 앤더슨꽃집 | 781-894-1843 |

### 금융 / 모기지

|            |              |
|------------|--------------|
| 인디펜던트(류영욱) | 617-777-2929 |
| 에이저 리      | 781-591-2722 |
| 이종수파이낸스    | 617-799-6158 |

### 냉동 / 에어컨 / 히팅

|             |              |
|-------------|--------------|
| JK 플러밍      | 978-303-7000 |
| Nirvana Air | 508-473-3429 |

### 노래방

|       |              |
|-------|--------------|
| 진 노래방 | 617-782-9282 |
|-------|--------------|

### 도서관

|           |              |
|-----------|--------------|
| 뉴햄프셔한인도서관 | 603-644-1991 |
| 보스톤공립도서관  | 617-539-5400 |

### 당구장

|        |              |
|--------|--------------|
| 울스톤당구장 | 617-782-0969 |
|--------|--------------|

### 동물병원

|           |              |
|-----------|--------------|
| 김문소 동물병원  | 978-649-6513 |
| 윤상대 동물병원  | 978-343-3049 |
| 제임스킴 동물병원 | 978-658-5282 |

### 떡 / 잔치 / 반찬(주문)

|       |              |
|-------|--------------|
| 형제떡집  | 978-343-6080 |
| 장음식주문 | 781-648-0584 |
| 한아름   | 617-547-8723 |

### 미용실

|                       |              |
|-----------------------|--------------|
| 가위소리                  | 617-782-8111 |
| 그레이스킨케어               | 978-468-0039 |
| 그레이스키팅클럽              | 617-331-1011 |
| 뷰티풀 헤어살롱              | 857-284-3879 |
| 세리 미용실                | 781-676-7374 |
| 압구정동열광방               | 617-437-0378 |
| 웨스트메인헤어               | 508-734-0446 |
| 티케이이헤어디자인             | 508-768-7675 |
|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 978-772-7886 |
| 헤어 스크린                | 617-787-1735 |
| 헤어 센스                 | 617-773-1220 |
| 헤어 Collage            | 617-354-4660 |
| 미용실 코리아LEE            | 617-913-3559 |
| AYER BEAUTY SALON     | 978-772-6555 |
| 최희희 헤어(Bloss Image)   | 617-818-5596 |
| 헤어앤드 그레이스살롱           | 508-879-7777 |
| MIN-AH MAKEUP         | 508-617-7122 |
| Scotty's of Lexington | 718-861-1277 |

### 돌상 대여/폐백

|      |              |
|------|--------------|
| 해피돌상 | 617-249-3131 |
| 폐백   | 978-688-0929 |

### 방송국

|           |              |
|-----------|--------------|
| 엔티비보스톤사업국 | 617-955-9112 |
|-----------|--------------|

### 변호사

|                   |              |
|-------------------|--------------|
|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 617-239-0839 |
| 김성곤 변호사           | 781-438-6170 |
| 김성희 변호사           | 617-884-0002 |
| 김연진변호사            | 617-742-7707 |
| 김성곤 변호사           | 781-438-6170 |
| 김성희 변호사           | 617-884-0002 |
| 김연진변호사            | 617-742-7707 |
| 박현종특허변호사          | 978-474-8880 |
| 성기주변호사            | 617-504-0609 |
|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 203-852-9800 |
|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 203-324-6155 |
| 장우석 변호사           | 781-712-1706 |
| 정선진변호사            | 617-230-0005 |
| 피터전변호사            | 203-386-0503 |
| JOHN DOWNEY 법률사무소 | 647-964-5809 |
| STEVEN S. KIM 변호사 | 617-879-9979 |
| Joy Lee 변호사       | 617-624-0292 |
| Young Lee Danesh  | 617-367-4949 |

### 병원

|            |              |
|------------|--------------|
| 가정의        |              |
| 그레이스 김 가정의 | 978-475-5656 |
| 내과         |              |
| 송민근        | 617-696-7600 |
| 하비드뱅크(이재용) | 617-421-2282 |
| 한서동내과      | 401-722-0305 |
| 한성식내과      | 978-854-6376 |
| 소아과        |              |
| 장경이 소아과    | 978-687-2119 |
| 스킨&바디 클리닉  |              |
| 메드스파엔젤니스   | 617-2026261  |

|          |                    |
|----------|--------------------|
| 심리상담     |                    |
| 배주은신경정신과 | 617-566-1055       |
| 심리상담     |                    |
| 김자향심리치료사 | 781-769-8670 x6080 |

|                   |              |
|-------------------|--------------|
| 양미아해밀리카운셀링        | 508-728-0832 |
| 임나경심리상담소          | 617-738-9622 |
| 재활의학              |              |
| 가족클리치로병원          | 781-365-1876 |
| 닥터스통증병원           | 617-731-1004 |
| 성진우척추신경전문         | 978-688-6999 |
| 추 남남 D.C.         | 617-230-4250 |
| Hana Rehab Clinic | 617-566-1199 |
| 보스톤건스태드카이로        | 617-277-0648 |

|                       |              |
|-----------------------|--------------|
| 치과                    |              |
| 김동원치과                 | 978-689-9363 |
| 김정규 치과                | 860-623-2601 |
| 브라이언윤치과               | 978-655-1583 |
| 신영목 치과                | 617-265-5606 |
| 안 치과                  | 781-647-8000 |
| 엑셀패밀리덴탈               | 617-471-6970 |
| 이영완치과                 | 508-987-8228 |
| 이요셉치과                 | 781-431-7295 |
| 케임브리지덴탈               | 617-492-8210 |
| 케임브리지덴탈아프닉스           | 617-871-1482 |
| 퀸지소아치과                | 617-471-2184 |
| 손영권치과                 | 978-459-0594 |
| 프로스팩트덴탈그룹             | 617-576-5300 |
| 한은애교정치과               | 781-894-1127 |
| 아이콘덴탈                 | 781-861-8978 |
| ASHLAND FAMILY DENTAL | 508-881-7272 |
| 장승혁보철임플란트             | 617-489-1470 |
| 전문치과                  | 401-729-2711 |
| Smart Dental          | 781-322-4914 |
| ACTON 살통치과            | 978-263-4592 |

|            |              |
|------------|--------------|
| 메모리얼병원(병리) | 203-330-8080 |
| 문히어링 보청기   | 781-573-3277 |

### 보석

|       |              |
|-------|--------------|
| 국제보석상 | 617-523-2553 |
| 메타판보석 | 617-298-6661 |
| 우리보석  | 781-272-2400 |

### 보험

|              |              |
|--------------|--------------|
| 이문항 보험       | 781-325-3406 |
| 조종은 종합보험     | 781-255-1134 |
| 베스트초이스한인종합보험 | 617-782-8800 |
| 윤광현 생명보험     | 978-390-4738 |

### 비디오

||
||
||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ne of Calvary Parish of Boston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45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성당 야드세일  
6월 1일 (토) 9시-2시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 교회 예배 안내 |       |
|----------|-------|
| 주일 예배    | 오후 2시 |
| 주일 학교    | 오후 2시 |
| 전도인 공부   | 오후 4시 |
| 화요 공부    | 오후 7시 |
| 수요 예배    | 오후 7시 |
| 구역 예배    | 각 구역별 |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              |               |
|--------------|---------------|
|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
| 종교동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4x7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선호  
781.266.7245  
617.820.4833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새로운 100년의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191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45 8·15 광복

1960 4·19 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

1987 6·10 민주항쟁

1998 IMF 외환위기 극복

2016 촛불 시민 혁명

2018 남북정상회담(판문점, 평양)

2019 3·1운동 100주년

2019 4·11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 '봄밤' 정해인x한지민, 농구장에서 재회..인연 시작됐다

(서울=뉴스1스타) 이지현 기자 = '봄밤' 정해인, 한지민의 인연이 시작됐다.

22일 오후 방송된 MBC 새 수목드라마 '봄밤'에서 유지호(정해인 분)와 이정인(한지민 분)은 약국에서 처음 만났다.

이정인이 유지호에게 첫 만남부터 빗을 젖고 이로 인해 서로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다. 이후 이정인은 눈이 오는 날 유지호의 약국에 찾아가 돈을 갚았다.

그러면서 "계좌번호 왜 안 보냈냐"고 물었다. 이에 유지호는 "이렇게 한번 더 보려고 그랬다. 밥 먹었냐"면서 대놓고 호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아직이면 이걸로 저녁 어떻냐"고 데이트를 청했다. 하지만 이정인은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잘라 말했다.

유지호는 웃으며 "전화번호는 외우는데 모르는 사람이라는게 말이 되냐"고 했다. 이정인은 "내 기억력이 좀 남다르다. 그걸로 가까워졌다고 해석하는 건 오바 아니냐. 앞으로 계속 볼 사이도 아니고, 수고하세요"라면서 약국을 나섰다.

홀로 생각에 잠겼던 유지호는 자리

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정인의 집을 이미 알고 있던 그는 벨을 눌렀고 다시 들은 마주했다.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 뒤쫓아왔냐"며 "빨리 가라. 경찰 불러야 하나"고 화를 내는 이정인. 하지만 유지호는 아무 말 없이 윗층으로 올라갔다. 이정인의 친구와 유지호가 이웃이었던 것.

이정인은 그에게 "아까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유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창문에서 몰래 지켜봤다. "눈 많이 온다. 조심해서 가라"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눈 오는 날 밖에서 한번 만나자, 우리"라고도 했다.

이정인은 '우리'라는 말에 깜짝 놀라면서도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다. 결국 바로 약국 앞에서 만난 두 사람. 유지호는 "쫓겼다. 들어가자"며 약국 문을 열었다.

이들은 짧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정인은 "나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유지호는 "나도 정인씨한테 할 말이 있다. 난 아이가 있다"고 해 그 배경에 궁금증을 유발했다. 유부남이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이정인은 "나쁜 놈은 아니지

않냐. 할 말이 이거였냐"고 물어봤다.

유지호는 "원래 하려던 말은.. 궁금했다. 이정인이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처음 본 이후로 자주 생각이 났다. 누군가 옆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도 한 번만, 한 번만 더. 그게 이렇게까지 왔다"고 진심을 고백했다.

이정인은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오해하게 만든 것도 있다.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호는 "사과를 왜 하나. 잠깐이지만 행복했는데. 이런 말도 불편하겠잖아. 못 들은 걸로 해라. 나 때문에 많이 곤란했겠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이정인은 "그런 거 없었다. 우리 친구하자. 이것도 인연인데 그냥 편하게 알고 지낼 수 있지 않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유지호는 "미안하다. 난 편할 자신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렇게 둘의 인연이 끝나는가 했지만, 농구장에서 재회했다. 올해 마지막 눈이 내리자, 이정인은 남자친구 권기석(김준한 분)이 있는 농구장에 갔다. 그곳에는 유지호도 있었다. 둘은 눈빛 교환을 했다.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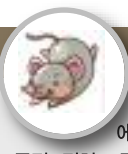


한편 '봄밤'은 어느 봄날 약국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로맨스 작품. 남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사는 지역 도서관 사서 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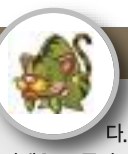
인(한지민)과 상처를 갖고 있는 약사 유지호(정해인)의 이야기를 그리며 매주 수, 목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lll@news1.kr

5월 26일 - 6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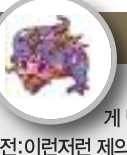
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http://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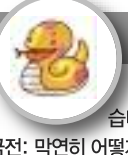
**쥐띠 |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보아야**  
●운수:내 것이라 생각하고 꼭 잡고 있으면 힘이 들지만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에 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금전: 전혀 조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의 흐름을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보아야 하겠습니까. ●애정: 모든 것을 다 털어 놓는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생긴 불안감으로 밤잠을 못 이루 수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8, 31일 길일. 30, 1일 주의.

**소띠 | 철저히 확인하고**  
●운수: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훨씬 더 클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까. ●금전: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은 융통될 것입니다. ●애정:현재진행형인 상대와 새롭게 만남 사람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정해야 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7, 1일 길일. 28, 31일 주의.

**범띠 | 지금은 때가 아니니**  
●운수:함께 있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겠습니까.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져도 지금은 때가 아니니 참고 지나가세요. ●금전:머릿속의 생각이나 이론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손해를 피해야려면 직접 부딪쳐서 얻는 산 경험을 쌓도록 하세요. ●애정:다시 한 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30, 31일 길일. 26, 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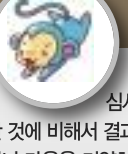
**토끼띠 | 자신감이 샘솟는**  
●운수: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샘솟는 때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질 것입니다. ●금전: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겠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득이 되는 고금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애정:마음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쌓였던 장벽도 한 순간에 다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6, 29일 길일. 27, 30일 주의.

**용띠 | 삶에 밀거름이 된다는 것을**  
●운수:상황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전:이런저런 제약이 들어오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동업이나 사업투자자에 대한 제의도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좀 더 신경 쓰도록 하세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자식을 빛나게 하고 자식의 삶에 밀거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7, 29일 길일. 26, 28일 주의.

**뱀띠 |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운수:중요한 약속은 잡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막연히 어떻게 잘 되겠지 믿고 기다리지 말고 대책을 세우세요. ●애정: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 받아들이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28, 1일 길일. 26, 29일 주의.

**말띠 |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운수:이렇가 저렇가 결정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한 쪽으로 결정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편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금전:기다리던 매개가 성사될 것입니다.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 금전적인 문제로 해결되었습니다. ●애정: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끌리는 감정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9, 1일 길일. 27, 30일 주의.

**양띠 |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운수: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하겠습니까. ●금전:원하던 것을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원가 구입할 계획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노릴 만합니다. ●애정: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망망하고 좋은 상대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드디어 인연의 짝이 나타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6, 30일 길일. 28, 31일 주의.

**원숭이띠 | 아주 중요한 기로에**  
●운수:행복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한다고 했는데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적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기회가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니 다음을 기약하고 용기를 내야겠습니다. ●애정:빨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이 꼬리를 물고 따라 다닙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7, 31일 길일. 29, 1일 주의.

**닭띠 |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운수:소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둘이서 의논하면 더 좋은 답을 얻게 됩니다. ●금전:금전운이 좋은 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애정:아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이 훌훌 분해하는 때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모든 관계도 좋아집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8, 1일 길일. 27, 30일 주의.

**개띠 |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운수:무작정 답을 기다리고 있자니 답답해집니다. 이런저런 일로 고민하게 됩니다. ●금전: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머릿속으로 계산한 것과 돌아오는 결과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애정: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때입니다. 오랜 세월 참았던 인내심이 바닥이 드러나고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9, 30일 길일. 28, 31일 주의.

**돼지띠 |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운수:여기서 멈추어야 하나 아니면 더 가야 하나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금전:돈은 들어오나 나가는 것이 많으니 모으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애정: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되기 쉽습니다. 당장은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7, 30일 길일. 29, 1일 주의.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플리마켓 보조로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508-863-6208

뉴장수 갈비에서 웨이치레스 구합니다.  
(Full Time 또는 Part Time 모두 가능)  
T. 781-272-3787

##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 '강식당2' 화랑도 반한 강북이 온다

(서울=뉴스1스타) 고승아 기자 = '강식당2'의 대표이미지가 공개됐다.

오는 31일 오후 tvN '강식당2'(연출 나영석, 신효정)가 처음 방송된다. 지난 tvN '신서유기6'에서 완벽한 호흡으로 웃음을 안겼던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안재현, 송민호, 피오에 이어 원년 멤버인 규현이 군 제대 후 돌아온다는 소식만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 실제로 '강식당2' 식사 추천에 최다 6만명의 인원이 지원하며 그 관심을 입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20일 '강식당2' 제작진이 멤버들의 잔망 넘치는 모습이 담긴 대표이미지를 공개했다. 명실상부 '강식당'의 메인 셰프 강호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포즈를 취한 멤버들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중식도와 스편지를 손에 쥔 이

수근부터 대과와 양파를 든 피오까지 '강식당2'에서 이들이 담당하게 될 업무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쏠린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강식당2'의 메뉴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표 이미지 속 간판에는 '강북이'라고 되어있어 주메뉴를 조금이나마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 지난 시즌 '사장이 더 많이 먹는'에 이어 이번 시즌에는 '화랑도 반한 맛'이라는 태그가 붙어 기대를 더한다.

과연 이들이 선정한 메뉴들은 무엇인지, 또 '강식당2' 오픈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다음주 방송되는 1회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강식당2'는 오는 31일 오후 9시10분 처음 방송된다.

seunga@news1.kr



## 싸이, 7월 정규 9집 앨범 발매...YG서 독립 후 첫 컴백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가수 싸이가 올 여름 드디어 아홉 번째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다.

21일 소속사 피네이션(PNATION) 측은 "싸이가 오는 7월 초 정규 9집 앨범으로 컴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싸이의 컴백은 지난 2017년 5월 발매한 8집 '4X2=8'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무엇보다 지난 1월 피네이션 설립 이후 첫 포문을 여는 앨범으로,

독심 있게 정규 앨범을 고집하는 싸이다운 음악적인 욕심도 돋보인다.

앞서 싸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만약 정규를 낸다면 9집인데 일단 이름 추천 받아보겠다"라고 신보를 준비 중임을 암시하며 "싸2, 싸이, 싸집, 싸이파이브, 싸이6집, 7집싸이다, 4X2=8"까지 지난 앨범명을 잇는 9집 앨범 타이틀을 공모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ichi@news1.kr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20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your home!  
Please call us for your major and mid-size renovation and new build projects.

otk212@gmail.com 617.620.8242

No handyman jobs, please.

© 2019 OTK DeCon Group



## 오해가 낳은 멋진 단어들

오해는 풀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 쓸 만할 때도 있다. 오해로 인해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정설로 자리를 잡아 또 다른 지식을 낳는다. 대표적인 경우가 Hamburger이다. 전에도 다루었다시피 Hamburger는 원래 독일의 도시 Hamburg 식이란 형용사였다. 언어학적으로는 [Hamburg + -er]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알 길이 없던 일반인들이 ham-과 -burger로 분석하기 시작했고, 아예 ham-대신에 무엇을 넣는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게 되었다. 치즈를 넣으면 치즈버거, 새우를 넣으면 새우버거, 김치를 넣으면 김치버거가 된다. 미국에서도 cheeseburger, fishburger, baconburger등 비슷한 방식을 쓴다. 오해치고는 참으로 근사한 오해이다.

오해에서 비롯된 멋진 단어들이 영어에는 꽤 많다. 우선 테니스. 필자는 아직도 테니스의 채점 방식에 익숙하지가 않다. 다른 스포츠에서는 당연히 1점부터 시작하는데, 테니스는 이상하게도 love, 15, 30, 40으로 채점이 된다. 규칙을 알기가 쉽지 않다. 다만 왜 0점을 love라고 하는지는 확실하다. 원래 '계

란'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l'œuf의 소리를 옮기면서 가장 가까운 단어인 love를 쓴 것이다. 프랑스어에서는 계란이 동그라니까 0점을 의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영어 love는 정말 뜬금없다. 프랑스어 l'œuf를 음성전사한 것이라는 역사를 모른다면 테니스 애호가는 정말이지 아무 관련도 없는 단어와 숫자의 자의적 관계를 외워야 한다. 오해치고는 뜬금없는 오해다.

필자는 루이지애나의 크로피시를 좋아하는다. 윌리엄 포크너가 살던 집, 밤새도록 재즈를 연주하는 시내, 라틴쿼터 등을 돌아다닌 후 다운타운의 한 음식점에서 맛본 크로피시는 그 매운맛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케이준 스타일의 양념과 멕시코산 고추기름에 담가 찐 크로피시는 맵기로는 매운 닭발보다 더했고 고소하기로는 랍스터보다 더했다. 그 중독성이란 가히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 크로피시는 영어로 crawfish라 쓴다. 고대영어 시절에는 프랑스어 crevice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낯설게 들려서 곧 crayfish라 쓰기 시작했다. crevice는 crevice의 이철자로

갈라진 틈을 말하거나 가재의 갈라진 겉껍질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사실 craw fish는 가재니까 어떤 의미에서도 fish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프랑스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루이지애나에서 crawfish가 일반적인 fish와는 달리 '기어다닌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crawfish라 부르기 시작했다. crawl은 '기어다니다'란 뜻이다. 그러다가中间的 'l'이 묵음화되면서 crawfish가 되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스페인어를 열심히 배우던 시절 필자는 <라 쿠카라차>란 노래를 배운 적이 있다. 그런데 cucaracha란 단어는 영어에 도입되면서 엉뚱하게도 cockroach(바퀴벌레)로 옮겨진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생명체 중의 하나라는 바퀴벌레는 스페인어 cucaracha에서 영어의 cockroach로 옮겨진 후 아예 첫 부분을 떼어버리고 roach라 불리기도 한다. cock(수탉)과 roach(바퀴벌레)가 결합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리만을 옮긴 음성전사였다.

인삼은 사람을 닮은 모습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인삼을 뜻하는 영어 mandrake도 그

와 유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원래는 라틴어 mandragoras에서 왔다. 영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받아들인 후 이것을 mandragon으로 할지 아니면 mandrake로 할지 백여년간 고민을 하다가 17세기 중엽에 mandrake로 낙착을 보았다고 한다. 앞에 있는 man은 뿌리가 사람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인삼과는 달리 mandrake는 독성이 있어서 약용으로만 쓴다.

piggyback(등에 업다, 화물을 싣고 저장 화차로 수송하다)은 셰익스피어가 죽은 1564년 이전에는 pick pack으로 쓰였다. 말 그대로 물건을 들어 올려서(pick) 짐을 꾸리고(pack) 다시 등짐(back)을 지고 옮겨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과정을 반영하여 pick-a-pack이 되었다가 등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pick-a-back으로 바뀌었다. 중간의 /a/가 /i/로 바뀌면서 pickback이 되었고, 193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piggyback으로 정착되었다. 그 의미도 마치 돼지처럼 아이를 등에 태우고 무릎과 두 손으로 기어 다니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주재원 비자(L-2)
- ✓ 특기자 비자(O-1, P-1)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취업이민
- ✓ 교수/연구직 이민
- ✓ 투자비자(E-2)
- ✓ 투자이민(EB-5)
- ✓ 가족초청이민
- ✓ 시민권 신청
- ✓ 추방재판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 다 같은 LED 마스크가 아니다 셀리턴, 왜 효과가 뛰어날까요?



## LED 개수

파장과 출력이 동일하다면,  
LED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는 배가 됩니다.  
120개의 LED와  
690개의 LED의  
당연히 차이나는 효과

## 기술력

수년간 끊임없는 연구와 임상실험으로  
도출한 최적의 유효한 파장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은 결과물입니다.  
특허등록된 유효 파장의  
출력 축진을 위한  
LED 모듈 기술은  
셀리턴만의 독보적인 기술

## 진화력

최초 1/2/3세대 출시로  
LED 마스크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불편한 컨트롤러 제외,  
기능 극대화 업그레이드를  
지속해온 유일무일  
전문기업



### / 프리미엄 / 피부 타입에 따른 3파장 시스템

- RED (RED + Near Infrared Ray)**  
탄력개선, 미백, 잔티세거, 흉라견 생성 등  
중요적인 피부 고민에 도움을 주고  
탄력있는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 BLUE**  
문제성 피부가 사용하기 적당하도록  
피부 진정효과를 부여해 피부 손상을  
최소한 막아줍니다.
- PINK(RED + BLUE)**  
레드파장과 블루파장을 동시에  
조사하여 문제성 피부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예방시켜줍니다.

### / 화제의 입소문 LED MASK /

탄력, 피부결, 피부톤 문제성 피부! 실제 사용해 보신 분들의 리얼후기



화산처럼 붉은 모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NASA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근적외선이라는 빛을 받고 믿고 구매, 사용 했어요!  
사진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모공이 너무 넓어 고민이라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기존 화장품 사용하는 것보다 진피층까지  
케어 가능해서 더욱 마음에 듭니다!  
(viki52)

약물에도 안되고 술에도 안되고...  
피부가 진정되어 안면 피부과도 많이 가졌지만  
비용이 그래서 좀더 저렴으로 구매했었어요!  
손 뻗을없이 얼굴로 퍼져가는 효과를 때문에  
정말 매일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피부가 한 톤 밝아지고 잡티서 저절로  
관리할 수 있어서 만한 제품이에요!  
(gms1025)

**HITRONS 셀리턴 입점기념 스페셜 가격** ★ 선착순 20명 ★ 기간 05/30/19년까지

|            |            |         |
|------------|------------|---------|
| 36개월       | 24개월       | 일시불     |
| \$53.99 /월 | \$70.99 /월 | \$1,699 |
| 36개월 + Tax | 24개월 + Tax |         |

**HITRONS Gold Member \$100** **HITRONS GOLD MEMBER 특별혜택! \$100 Gift Card**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http://www.hitrons.com)

**NJ Main Branch**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Ridgefield Hanyang Mall)

**Bethel Health - NY**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Korea Village 1st fl.)

**Bethel Health - NJ**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Inside HanNam Mart)

**PA Bra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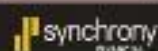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Assi Plaza PA)

**MD Branch**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

**Mattress- NJ**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Next to the Dunkin Donuts)



Synchrony Financial을 통해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 승인 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객이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696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상록회 어른들 '경로잔치'에 다녀와서...

지난 5월 18일(토) Andover, MA 소재 북부보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목사:최진용)에서 제4회 상록회(회장:이기환) 경로잔치가 열렸다. 상록회 어르신들과 더불어 보스턴한미노인회(회장:윤철호) 그리고 6.25참전 유공자회 회장 강경신 옹과 함께 참전용사 미 국민 5명, 박기식 옹이 함께 참석하였다. 이번 상록회의 경로잔치는 보스턴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함께 서로 달래고 나누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약 1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와 즐거운 이야기들 속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상록회를 이끄는 이기환 회장 인사말의 시작으로 북부보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최진용 목사의 환영사가 이어지고 상록회 회원의 파념인 원호찬 씨의 가야금 연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상록회 회원인 최미숙 씨의 소프라노 독창과 함께 북부보스톤 교회 주일 학교의 Matthew Jo의 첼로 연주가 더욱더 상록회 '경로잔치'를 무르익게 만들었다. 또한, 북부보스톤 교회의 임마누엘 중창팀의 정겨운 노래와 함께 보스턴한미노인회 '보스톤 난

타팀'의 멋진 공연은 모두들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고 상록회 기타팀(팀장:주종옥)의 멋진 연주도 이어졌다.

또한, 북부보스톤 교회 담임 최진용 목사의 말씀과 함께 참전용사 강경신 옹과 함께 미국인 참전용사 5분이 소개되었으며, 간단한 나눔의 말씀이 있었다. 참으로 귀한 자리였다. 아흔을 훌쩍 넘기신 강경신 옹의 인사말과 뜻깊은 모습에 참으로 감동을 받았다. 이렇듯 어르신들의 밝고 맑은 모습은 젊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고 감사이다. 미국 이민 1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까닭이다. 또한, 6.25참전유공자로서 뿐만이 아닌, 미국 참전용사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지난 우리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밝은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길 바라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시작은 5시부터였다. 나는 상록회 회장님의 부탁으로 사진을 담당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간을 맞춰 교회에 도착했다. 교회 입구를 들어서서 순간부터 감동이었다. 안내를 맡으신 분들의 곱게 차려입은 한복에서부터 '경로잔치'는 시작이 되었다. 이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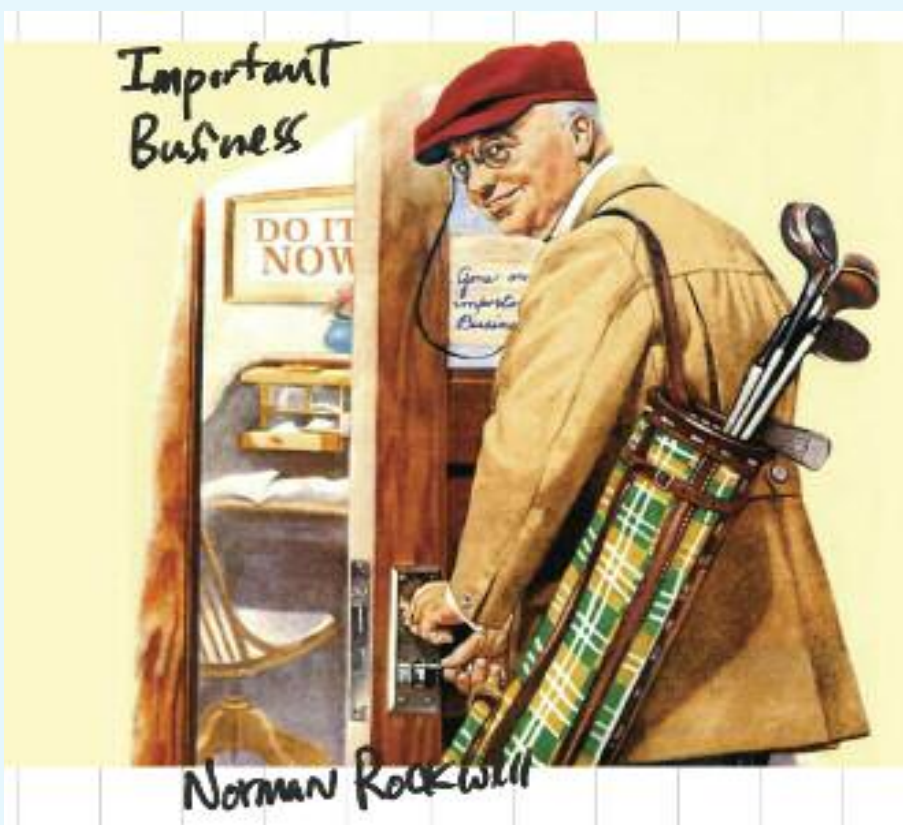
를 정성스럽게 적어 붙여주시는 북부보스톤 교회 부목사 정유상 목사님의 봉사에도 감사했다. 또한, 부엌에서 음식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볼새 없이 펠로우십에는 테이블마다 고운 꽃이 자리해 있고 참석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도 예쁘고 곱게 포장되어 자리를 더욱더 환하게 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둘러본 후야 부엌에서 봉사해주시던 분들을 만나게 되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동인 순간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여져 이토록 멋진 '잔치'가 열리게 된 것이다. 모두가 바쁜 일상가운데 시간을 내고 마음과 정성을 내어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르신들의 모임이 감사해서 늘 빵을 구워주시는 분, 떡을 해주시는 분, 부엌에서 음식과 뒷설거지로 몸은 힘들지만,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여러 분들께 다시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어디 그뿐일까. 차량이동과 배치를 위해 봉사하시던 남선교회 분들 즐거운 게임을 맡아 주관해주시는 여선교회 분들.

2부 순서로 북부보스톤교회 상록회와 여선교회의 후원으로 친교실에서 만찬이 시작되었다. 음식이 어찌나 맛나던지 기분 좋은

시간을 가졌다. 식사가 끝나고 상록회 회원이신 주종옥 님의 '매직쇼'가 시작되었다. 순간 순간 깜짝깜짝 놀라고 말았다. 매직쇼를 보면서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그 뒤를 이어 상록회 회원이신 홍성도 님의 '만담'이 시작되었다. 이분의 '만담'을 들어본 이들은 시작이 되기도 전에 벌써 입가에 웃음이 가득 고여온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배꼽을 잡는 소리가 들린다. 참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다.

상록회를 위해 늘 봉사를 아끼지 않는 김지영 님의 '게임 및 오락' 시간이 되었다. 이 시간도 어르신들께 배움을 수 없는 시간이다. 게임의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 그에 따른 상품이 그 게임을 더욱 진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락부장 김지영 님 외 서영애 님과 구영희 님의 활동이 더욱 빛이 났던 시간이었다. 상록회 기타팀의 '나의 살던 고향은, 비바람이 치던 바다, 고향 생각 등'이 연주에 맞춰 함께 노래를 불렀다. 또한, 아쉽게도 노래방(담당: 이학빈 님)은 계획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제4회 상록회 '경로잔치'에 참석하며 각자 봉사의 손길에 감사하며 감동을 받았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내가 적극 동의했다. 후자는 갈팡질팡이라 할지도 모르겠다. 좌측 신호등 켜고 우회전 한다 하던가? 하긴, 어느 전직 한국대통령은 어려움을 알고 쉽게 방향을 틀었다고도 했다. 그게 옳다. 현직에 있는 이들은 모두 그때 국무총리요, 비서실장 하던 이들 아니던가?

한국 여당 당수가 말했다. '나 한테 혼나볼래? 상대방 야당 원내총무를 향해 내뱉은 일갈이다. 어른이 아이를 혼낼적에 하는 투다. 과연 그가 힘이 센 모양이다. 아니면 어른 인가? 말투에 배를 잡고 웃어야 하나? 아니면 데굴데굴 구르며 웃어야 하나?

그는 전직 국무총리였다. 그가 골프를 무척 즐긴다 했다. 덕분에 중대한 일에 골프치느라 시간을 놓치기도 했다는데, 급세 골프공을 대리석바닥위에선 잘 튕다. 하지만 골프는 잔디밭 위에서 한다. 골프공은 흙에 넣고자 퍼팅하면 데굴데굴

구른다.

광화문 교보빌딩에 다시 글이 걸렸단다. 서울은 벌써 초여름일제다. 제목이 고무공처럼 튕다.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그래도 살아 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쓰러지는 법 없는 둥근 공처럼’ (정현종,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2019년 봄, 광화문 글판)

바라 건대, 제발 튀어 오르게 하시라. 남을 혼내주기전에, 먼저 튀어 오르게 하라는 말이다. 튀어 오르는게 공만 있으랴. 오투기도 있다. 그에게 혼이 난다 해도 혼난 그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마태 26:46)

오래전 이다. 한국 기업 높은 분을 만나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가 한숨쉬며 걱정했다. '경기가 말이 아니다. 바닥을 헤매고 있다.' 내가 되물었다. '떨어져 바닥을 쳤으니, 다시 튀어 오르겠지요?'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요즈음 고무공은 바람이 너무 빠졌다. 튀어 오르는 건 고사하고 구르지도 않는다.' 그가 쓴 웃음을 짓는게 보였다. 덩달아 나도 따라 웃었다. 배를 잡고 웃은 건 아니다. 데굴데굴 구르며 웃지 않았다는 말이다.

한국 경제가 말이 아닌 모양이다. 하긴, 언제

경기가 좋았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있으신가? 나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 적은 없다는 말이다. 사방 어디서건 죽겠다는 소리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정신을 엉뚱하고 어처구니없는곳에 쏟고 있는 건 아닌가? 덕분에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데굴데굴 구르게라도 해야 한다.

누가 그러더라. 진정한 중도는 좌와 우의 중간에 불변 불박이로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좌진 우진 옮겨 다녀야 한다.



보스톤 **코리아**  
www.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 이제 인터넷 신문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이메일 주소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온라인 신문을  
직접 발송해 드립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보스톤코리아  
기사를 확인하세요!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28)

# 2019년 머니쇼

“투자고수 비법 다모았다...당신도 부자가 되겠군요”

“글로벌 경제, 금융 전망, 투자전략, 국내외 최고 전문가”

“해외주식 투자 비법도 공개”

“투자고수 족집게 강의”

“실전 부동산 꿀팁”

한국에서 경제 신문으로 대표적인 한 신문사의 ‘머니쇼’ 기사 일부이다. “고수, 족집게, 최고, 비법, 꿀팁” 일반 투자자의 안목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언어를 총동원한다. ‘재테크 나침반, 최고 전문가, 스타 펀드매니저, 베스트셀러 저자’ 이런 사람들의 특강을 듣고 투자하면 ‘고소득 투자자’ 가 바로 될 것 같은 마음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자 고수나 비법 그리고 전문가’ 는 없다. 투자전문가가 없는 이유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미국과 한국 전부 해서 투자로 큰돈을 번 사람이 누구 인지를 묻는다면,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 , 10명 이름 말하기도 매우 어렵다. 투자 고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진짜로 투자 고수가 있다면 본인이 돈 벌기에도 바쁜 시간에 투자비법을 왜 여러분에게 말하겠는가?

최근 월스트리트지에 나온 기사(The darts beat the experts in investing, Spencer Jakab, WSJ, May 6, 2019)를 인용하면 주식 시세를 발표하는 재정신문을 벽에 붙이고 화살을 던져서 맞은 회사 10개를 선정해서 투자하고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주식전문가가 선택한 회사의 수익률을 비교했다. 투자 기간은 1년(4/23/2018-4/22/2019)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주식전문가란 여러 주식선별가(Stock Analyst), 막대한 투자금, 풍부한 정보, 등 모든 것을 이용해서 투자회사를 선정한 것이다.

결과는 투자전문가의 수익률은 -4.4%를 기록했다. 신문위에 화살을 무작위로 던져서 투자한 수익률은 17.3%를 기록해서 차이가 거의 20%가 넘는다. 참고로 같은 시점 미

국 500대 기업(S&P 500)의 수익률은 11.1%였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주식시장(Random Walk Down Wall Street)” 이란 책이 46년 전 출판되었다. 책의 저자는 프린스턴 대학의 버턴 매킨(Malkiel) 교수이다. 책의 결론은 “주식전문가가 주식을 선별하는 것이나 원숭이가 눈 가리고 주식 선별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주식전문가’ 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매킨 교수는 “일반 투자자는 펀드전문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보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고 추천한 것이다.

머니쇼에 참가한 120개의 투자업체는 신문에 참가비를 낸다. 신문사는 투자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업체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돈을 번다. 재테크 베스트셀러 작가도 본인이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책을 팔아서 돈을 번다. 머니쇼에서 제대로 된 투자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투자자의 이익만을 위한

제대로 된 투자 조언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올바른 선택은 일반 투자자가 판단해야 한다.

주식투자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을 주위에 서 간혹 접한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재정문서나 세금을 낸 기록을 본 적은 없다. 부부간의 사정은 부부 외에 아무도 모른다. 주식투자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그 속사정은 아무도 모른다. 우연히 잘된 경우는 있다. 그러나 우연은 반복하지 않는다. 투자에 관해서 돈 번 사람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벌고 투자에 관한 책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 또한, ‘투자대박’ 으로 큰돈을 번 사람이 있다면 투자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투자대박’ 이란 거의 없다. 한국 주식 시장과는 다르게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실패하는 투자를 반복하는 한인 동포들이 많이 있다.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 “제대로 하는 투자인가?” 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란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성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 잘못된 질문

몇일전 지역 저녁뉴스를 보고 한참을 생각하게 되었다. 뉴스의 내용이 “지금이 주택매매의 시기인가? 왜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은 언제 물어봐도 지금이라고 대답하는가? 그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뭘 소리를 하는지 횡설수설이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집을 팔라는 소리인지, 말라는 소리인지 알수가 없는 대답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던 질문 중에는 “제가 숏세일을 할까요? 파산 할까요? 융자 재조정을 할까요? 아니면 재융자를 할까요?” 이다. 나는 우선 손님의 기대치를 물어본다. 기대치를 알아야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얼마를 아끼실려고 하십니까?” “네, 지금 \$3,500 내고 있는데, 한 \$1,500 정도를 났으면 합니다”

재융자는 우선 탈락됐다. 재융자로 50% 이상의 페이먼트를 줄이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다음 옵션들은 숏세일, 파산, 그리고 융자 재조정이다. 나는 항상 출혈이 가장 적은 순으로 방법을 추천한다.

융자재조정, 숏세일 그래도 힘들면 파산



이 그 순서이다. 그러면 손님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조언을 했다는 것이다. 파산 변호사는 파산을, 부동산 전문가는 숏세일을, 그리고 융자브로커는 융자재조정을 추천했다고 한다.

부동산전문가에게 “지금이 집을 매매할 시기인가가요?” 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네” 라고 할 것이다.

미래를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마 누구나 억만장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현재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믿는다. 더구나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매매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한다. 그렇기에 당연히 수입을 창출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질문이 “지금이 집을 매매 할 시기인가가요?” 이다. 즉, 주택의 매매를 결정해 놓고 시기를 찾는 중인 것이다. 만일 질문이 “주택을 매매해야 하나요?”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주택을 왜 매매해야 하는지 사람마다 그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주택을 매매해야 하기도 하고, 말아야 하기도 한다.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정비소가 있다.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자동차 정비소를 알려달라고 하면, 항상 그곳을 추천해준다. 물론 그 정비소 주인은 내가 앞장서서 추천하는지를 모른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알게 되었다.

많은 소비자들이 좋은 평가를 인터넷에 올려서 알게 되었다. 더구나 한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더 더욱 기뻐다. 내가 그곳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 차를 고쳐야 하나요?” 하면 솔직한 조언을 해주기 때문이다. “지금은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차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차 고장은 딜러에서 무상으로 리콜로 고쳐줍니다. 그곳에 가 보세요” 만일 정비소 주인이 나에게 새로 차를 사야한다고 조언

을 해준다면, 주저없이 당장 차 딜러로 갈 것이다.

자동차에 관해서는 그 정비소 주인이 나에게 절대신용 이듯이, 부동산에 관해서 많은 한인 전문가들이 무한신용이 되길 바란다. 그 정비소 주인이 신용을 이윤보다 우선시 했듯이, 많은 한인 부동산 전문가들도 신용을 이윤보다 추구하길 기대한다. 손님들이 “지금이 주택매매의 시기인가가요?” 라고 질문하면 “왜,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하길 기대해 본다.

**백성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8만여편의 한국방송 및 최신영화  
내 안대로 골라보는 합법 IPTV

tv... Since 2008  
2008년부터 안정적인 합법전국방송 서비스인  
티보플레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아재기는 유이비이에 우리 하레보



티보플레이 **TBO** 1년에 단 한 번

## 1+1 호도이벤트

우리집에 티보플레이 설치하면 부모님댁에는 무료!  
사랑하는 부모님께 티보플레이로  
즐거움을 선물하세요

우리집에 설치  
첫번째 티보플레이 ~~\$34.99~~ \$29.99

부모님댁 설치  
두번째 티보플레이 ~~\$34.99~~ **FREE**

2번째 기기는 기기값만 \$55 (이용료 1년 면제) 1년 이후 \$9.99

**1년간 \$1 유료 영화도 모두 무료**

5월1일~6월30일 (단 두달간)

# 우리집에 티보플레이 설치하면 부모님댁에는 무료! 티보플레이 1+1 호도이벤트



## 더 작아지고 강력해진 NEW 티보플레이

- 북미주 전역을 커버하는 판매/AS 딜러 네트워크
- 원하는 프로그램 원하는 시간에 보는 서비스
- 마음 놓고 보는 합법 방송
- 리모콘 하나로 컴퓨터 없이도 쉬운 시청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채널  
티보에 모두 다 있다

TV켜고 리모콘누르면 끝!

컴퓨터 조작이 서투르신 부모님  
이제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고 리모콘 하나로  
부모님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가요 바둑 인기유튜브  
강의 종교/철교 드라마  
미주로컬라디오 다큐멘터리  
사사 애능 스포츠 뉴스



### 티보플레이 지역별 가입안내

- 서부** 시애틀 (KTC) 253-835-1004 북가주 (Sky Comm) 408-257-2525 샌디에고 (Ace Tech) 619-316-4182 LA 교차로 (Kyochan) 213-383-1236
- 중부** 시카고 (교차로) 847-391-4112 일라노스 (News Korea) 872-247-8111 신한도나호 (코리아마켓) 210-445-1535 몬파스 (아리랑 마켓) 209-756-1743
- 동부** 애플랜드 (SND Tech LLC) 678-584-6514 오하이오 (주인필라) 267-230-7773 버지니아 (NAU Computer) 709-942-6822  
보스턴 (The Boston Korea) 617-949-1768 NY 교차로 (Kyochan) 917-685-9665 New York, New Jersey 917-488-1072
- 캐나다** 토론토 (강원미디어) 905-832-3333 밴쿠버 (교차로) 604-420-1068

상담 및 가입문의 무료전화

**617-949-1766**

LA 가입/문의 **213-999-7090**

본사주소 3435 Wilshire Blvd. #2915, LA, CA 90010





글, 사진 정선주

## 세상의 끝을 가다

End of the World, Southernmost point of the World

Cape Horn (55° 58' 47" S)은 세상 끝에 놓여 있는 바다위로 1394feet 올라온 작은 섬이고 칠레 영토이다. "Below 40 degrees latitude, there is no law; below 50, there is no God."

이곳은 항해자들의 무덤으로 여길 만큼 지나가기가 아주 힘든 곳이라, 우리가 옛날 고등학교 지리시간에 배워서 기억나는 마젤란선장도 Cape Horn으로 돌아오는 것을 꺼려하고 이 길을 피하다 현재의 마젤란해협을 발견하게 된다. 1616년 네덜란드인 le Maire and Schouten가 Cape Horn을 발견하고 자신의 expedition을 도와준 네덜란드 Kaap Hoom 지명 이름을 따서 Cape Horn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아침 7시 150명을 태운 Stella Australis Expedition ship 선장은 우리가 Cape Horn에 Landing할 수 있다고 방송을 했다. Landing할 chance는 50% 라는데 우리의 운이 좋은 날이다. 배에서 몇명씩 Zodiac을 타고 가서 Cove에서 나무다리를 올라가야 한다. 와... 멀리 높이 20meter되는 강철로 조각된 Cape Horn Monument가 우뚝 서있다. 16세기에서 20세기 사이 유럽에서 멀리 이곳 대서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Cape Horn을 지나갈 때 남극에서 물려오는 바람때문에 10층 건물 높이의 거센 파도와 조류 그리고 70마일의 풍랑으로 10,000명의 선원들, 800대의 배들이 이곳에서 사라지고 말았다고 한다.

나는 기념비 앞에 있는 대리석 현판 위에 스페인말로 적혀있는 시를 보고 있었다. 누군가 영어로 번역해서 말해주는데 그저 감격에 벅차게 들렸다. 지금도 칠레 시인 Sara Vial이 1992년에 쓴 시를 가끔 읽을 때마다 Cape Horn이 생생하게 내 앞에 보이고 있다.

I am the albatross that awaits you



the Chilean Fjords

At the end of the world,  
I am the forgotten soul of dead mariners  
Who passed Cape Horn  
From all the oceans of the world.  
But they did not die  
in the furious waves.  
Today they sail on my wings  
Toward eternity,  
In the last crack  
Of the Antarctic winds.

이 섬에는 오로지 한 가족만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간 날 새로운 가족이 이사 들어오고 있었다. 너무 외로운 이곳에 오래 견디기가 쉬운일이 아닐터이니. 툰드라지역기후로 이곳에는 나무는 하나도 없고 특별한 아주 낮은 식물만 살아 남아있다. 작은 등대와 조그만한 chapel뿐 온 주위는 남극으로 가는 저 멀리 Drake Passage 바다만 보이는 듯 하다.

1914년 Panama Canal이 개통되어 많은 상선들이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기위해 이곳을 항해하지 않아도 되어 선원들에게 천만다행이다. Celebrity cruiseship의 여행객들은 날씨가 좋아 운이 좋으면 그저 갑판위에서 멀리 Cape

Horn이 보인다고 환호성을 지른다고 한다. Cape Horn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드물고 행운아이다)을 마지막까지 바라보면서 자연에 순응해야함을 받아들이며 내려오는데 마음이 뿌듯하고 살아있음을 다시 감사하게 여겨 혼자 중얼거렸다. 내 이름이 선주(신선이 타는 배)라 Cape Horn까지 올 수 있었고 살아 나가게 되게 아닐까? 작년 Norway여행하면서 유럽에서 제일 높은 장소인 North Cape 북위71도에 들렀다. 너무 감격스런 순간이었다!

2010년부터 우리는 해외여행을 계속하고 있다. 그 중 세상에서 제일 긴나라 남미 칠레를 좋아한다. Santiago 북쪽 Atacama Desert에서부터 Bariloche, Puerto Vara, Osono Volcano Hike, Chiloe Island 그리고 Patagonia .... Torres del Paine National Park 은 이번까지 나에게 3번씩 찾게 해 준 곳이다.

Puerto Natales를 거쳐 Punta Arena에 도착한다. 2번이나 Strait of Magellan을 보고만 갔지만, 그 위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지 못해서 무척 서운했었다. 1520년 포르투갈선장 Ferdinand Magellan이 처음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지나간 사람이라 그의 이름을 따

Straits of Magellan이라 부른다.

우리는 Punta Arena에서 small Luxury Expedition ship에 몸을 담고 마젤란해협 항해를 시작 한다. Ainsworth Bay에서 내려 낙원에 온듯 한 착각에 잠시 빠져본다. 이곳에서만 자란다는 빨간 분홍빛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해서 따 먹으며, 하이킹이 너무 특별했다. 작은 호수에 지어진 Beavers dam을 정확하게 보며, 또 무지개도 나타났다. 여러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은 모두들 이곳에서 meditation을 하자고 해서 잠시 조용한 순간을 가져본다. Tuckers Islets에서는 Magellan Penguins과 com-morants를 수백마리를 보았다. 1832년 Charles Darwin이 HMS Beagle을 타고 Beagle Canal에서 가장 Beautiful Bay라고 불리우는 Wulaila Bay에 정박을 했다고 한다. 우리도 섬에 내려 하이킹을 한 후 정상에서 아주 아름다운 Bay를 내려 보며 모두들 숙연한 자세를 취한다.

4박 5일간 Expedition배를 타고 마젤란해협을 지나 말로만 들었던 Beagle Channel, 그곳을 지나는 동안 Glacier Pia를 하이킹하고 숨어있는 Glaciers들을 찾아보며 내내 계속되는 설산과 Glaciers를 경관하게 된다. Chilean Fjords Cruise하는 5일간 wifi 없는 세상이라 신선한 생각만 하게 될 수 있어서 몸과 마음이 더 깨끗해진 듯 했다. 마지막날 아침 우리는 칠레를 떠나 Ushuaia, Argentina에 내린다. 이 작은 도시가 세상끝 도시라는 nickname으로 불린다. Cape Horn에서 북쪽으로 하루 걸려서 도착하였다. 이 항구에서 남극가는 배를 타게 된다. 하루하루가 낙원에서 지낸 것 처럼 행복했던 평생 기억이 될 The Wildemess Beyond: Patagonia, Tierra del Fuego (Land of Fire) and the Chilean Fjords 신선한 여행 감사합니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세무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 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튼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미국, 캐나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협력업체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76 화랑세기花郎世紀, 11세 풍월주風月主 하종夏宗(17)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12세의 어린 나이로 신라의 제26대왕으로 오른 진평왕은 ‘여인천하’에 묻혀서 지냈다. 먼저 왕실의 가장 어른인 태상태후 사도(진흥왕의 정비)는 그의 조모였다. 그리고 생모인 만호태후와 전왕前王 진지왕의 왕비 지도태후가 있었다. 또한 좌우후의 위치를 가지고 미실과 보명이 색도를 하였다. 진평왕이 579년 왕위에 오른 후 태상태후 사도법주思道法主가 584년까지 섭정을 하였다. 그리고 사도는 미실을 법운法雲으로 삼았기에 거의 모든 정사를 미실이 장악하였다. 동시에 아양공주가 미실의 독주를 묵인하지 않고 가야파를 이끌며 세력을 나누고 있었다. 아양은 사도의 딸로 김무력의 부인이었다. 김서현은 그들의 아들이고 김서현은 김유신의 아버지이다. 그리고 진지왕의 왕후였던 지도태후는 대원신통이었지만 사도와 만호사이에서 문노정과文弩正派를 지원하였다. 이 여인들 중 사도와 미실과 아양은 대원신통이며 사도가 수주首主였다. 지소의 딸인 만호공주는 진골정통의 수주였다. 지도는 흥도(옥진의 딸이며 사도의 동생)의 딸로 대원신통이었지만 지소태후가 생전에 거느리다가 딸 만호에게로 넘긴 가장 세력이 컸던 화랑도들인 문노정파를 지원하였다.

579년, 화랑도를 이끌고 진지왕 폐위거사에 크게 공헌한 문노는 8세 풍월주로 취임하였고, 화랑도 및 군사들을 지휘하여 거사를 주동한 노리부는 상대등에 올랐다(579 ~ 588년). 진지왕 재위 중에는 거칠부(황종, 문노의 장인)가 사도의 세력에 의해 상대등(576 ~ ?)으로 추대되어 있었지만, 그는 노쇠하여 대등인 노리부가 실권을

을 잡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579년 사망할 때까지 상대등의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어린 백정이 진평왕으로 오를 당시 조정은 여인천하였다. 태상태후 사도를 비롯한 3태후와 진흥왕의 후궁으로 진평왕의 좌우후가 된 미실과 보명, 그리고 가야파의 배경으로 정파의 한 축을 잡은 아양공주가 그들이다. 당시의 상황을 화랑세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때 궁중에는 삼태후가 있어 행정을 했고, 대왕은 어질고 효성스워서 어른들의 말을 받들어 따랐다. 그러므로 낭도 중 승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태후궁에 많이 붙었다. 태상태후인 사도법주는 미실공주로서 법운을 삼았다. 그러므로 정령政令이 미실궁에서 많이 나왔다. 그런데 법주의 딸 아양공주阿陽公主가 곧 서현의 어머니였기에 가야파의 태양이 되어 미실의 세력을 나누었다. 만호태후는 진평대왕의 어머니로 더욱 왕의 총애가 있어서 진골정통의 수주가 되었다. 지도태후가 태상과 만호 사이를 출입하며 문노정파를 도왔다.]

이렇게 사도태후가 섭정을 하고 오라비 노리부가 상대등으로 거의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원신통이지만 문노정파를 지원하고 진골정통의 수주 만호태후를 따랐던 지도태후의 의중을 파악한 비보랑(9세 풍월주를 역임)은 풍월주 하종의 부제였던 보리공을 몰아내고, 지도의 아들(진지왕의 아들) 김용춘을 그 자리에 앉히려 하였다. 하지만 만호가 반 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용춘은 비록

화랑도 부제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진지왕(폐위가 되긴하였지만...)의 아들이었기에 따르는 낭도들이 많았다. 가야파를 이끌며 당시 전방화랑(화랑도 조직의 서열 3위)의 직책을 맡고있던 김서현이 가야파의 모든 낭도들을 김용춘에게 넘겨주었다. 아마도 김용춘의 아들 김춘추와 김서현의 아들 김유신은 이미 이때부터 합종의 씨가 트고 있지 않았을까? (아직 김춘추와 김유신은 태어나지 않았다)

김용춘金龍春, 김용수金龍樹와 김용춘, 자세한 내용은 13세 풍월주 용춘공조에서 살펴 보겠지만, 여기서는 다만 그들이 ‘형제인가? 동일인가?’를 고증해 보겠다. 먼저 화랑세기(13세 풍월주 용춘공조)에 기록된 몇 가지 “용춘공의 형인 용수전군龍樹殿君은 혹은 동태자의 아들이라고 하고 혹은 금태자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진실을 알 수 없다.” 동태자는 동륜태자이고 금태자는 금륜태자이다. 금륜은 후에 진지왕이 되었다.

같은 용춘공조에 나오는 대목, “그 때 대왕은 적자嫡子가 없어 용춘공의 형인 용수전군을 사위로 삼아 왕위를 물려주려 했다.” 당시 진평왕은 후사를 볼 수 있는 나이였지만 마야왕후의 뜻으로 용수를 천명공주와 혼인시켜 사위로 삼았다. 이와 같이 화랑세기에는 용수와 용춘이 형제로 등장한다.

반면 삼국사기(태종무열왕 즉위조)에는 무열왕이 진지왕의 아들인 이찬 용춘(一云 용수)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삼국유사(왕력편)에는 용춘은 일작一作 용수라고 기록되어 있다. 1145년에 고려인에 의해 완성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와 1281년 편찬한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동일인으로, 신라인 김대문이 신라시대(성덕왕 재위 중 편찬, 702 ~ 737년)에 쓴 화랑세기(필사본)에는 형제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에 김용수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동일인으로 본다. 화랑세기에는 용수가 용춘의 형으로 천명공주와 결혼하여 김춘추를 낳은 뒤 요절하였다. 화랑세기에는 용춘이 578년에 태어나서 647년에 죽었다. 그렇다면 그의 형인 용수는 그 이전에 태어났다(576년경으로 추측한다). 김춘추가 603년에 태어났기에 아마도 용수는 그 이후에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화랑세기의 기록대로 용수가 요절했다면 적어도 27세 이후이다.

한편, 황룡사구층목탑은 645년(선덕여왕14년)에 건립하였고, 그 탑의 금동찰주본기는 872 ~ 873년에 탑을 중수하면서 기록했다. 230여년에 걸쳐 여러번 중수한 기록인 찰주본기에 김용수가 645년 건립 당시 한 역할이 나온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용수와 용춘을 동일인으로 본다(삼국유사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보스톤코리아

# 보스톤 한인업소록



## 구글에서 찾을 수 없는 한인업소들의 알짜 정보를 담은 한인업소록을 발간

**보스톤의 모든 한인 업소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13년 보스토니안 발행이후,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개정해서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 보스톤 한인업소록에는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로드 아일랜드 및 뉴햄프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망라합니다.

이 디지털 한인업소록은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와 이메일 등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을 원하시면 :  
[upsorok@bostonkorea.com](mailto:upsorok@bostonkorea.com)으로  
이메일하세요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1.800.867.9000

Cell 508.962.2689  
Tel 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 kayleebrokers@aol.com



- \* 상가 건물 전문-투자, R&D, 콘도, 아파트 건물
- \* 상가 건물 용자, 비즈니스 용자 알선
- \* 1031 Exchange (상가건물 세금 혜택) 서비스
- \*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 \* E2 바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 상담
- \* 다양한 리스팅 많이 보유

보스턴 남쪽 런드로맷 & 건물 연매상 \$600,000  
비즈니스와 건물 함께 매매 \$1.5M

보스턴 근교 세탁소 플랜트 연매상 \$150,000  
no perc 세탁 기계 (2019 교체)  
소유자 은퇴, 좋은 위치

보스턴 북쪽,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 \$444,000  
최고의 위치, 꾸준한 고객들, 30+ 년이상 존재

보스턴 남쪽, 보스턴에서 15분 거리,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850,000, 새 장비  
no perc 쓰는 세탁기계

전국 프랜차이즈 Subway 보스턴 남쪽, 연매상  
:\$395,000 매매가격:\$70,000 (\$7,500 - 한  
번 내는 이전비 포함), 대학교 근처  
훈련, 소유자 20+ 년 경영후 은퇴

보스턴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 + 사쓰유닛  
연매상: \$265,000, 고급 동네, 좋은 위치  
소유자 은퇴

급매매, 매드포드/섬머빌 세탁소  
연매상: \$110,000, 좋은 매매가격: \$80,000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서초유닛  
연매상 \$78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20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80,000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로드아일랜드 성업중인 한국 식당  
연매상 \$2.1M, 매매가격 \$800k  
풀리커 면허증, 72석, 대학교 근처

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보스턴 서쪽 풀 플랜트 & 서초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턴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프래밍햄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 마음대로 골라본다

# \$24<sup>99</sup>

5월 1일부터 Tbo 상품의 가격이 인상됩니다.

상품 가격이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무료영화는 4월 및 5월까지 무료,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KBS MBC SBS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sup>99</sup>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sup>99</sup>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sup>99</sup>

\*전상품 무약정

###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